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반역하고 인간중심으로 되어 가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월 30일 (토) 제 1811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성적 혁명 맞서 하나님 주신 가치 지켜나가야!

미 언론, 바이든의 성소수자 인권보호행정명령 배경과 보수진영의 대처 보도

조 바이든 미국 제 46대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직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 행정명령 17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한시했거나 그의 정책 중 문제가 있는 것들을 뒤엎은 것이다. 앞서 미국 대통령 4명이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은 모두 합쳐 4건이었다.

이날 오후 취임식을 마치고 3시52분께 백악관에 입장한 바이든은 1시간 반 뒤인 오후 5시19분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왼쪽에 행정명령 서류를 쌓아놓은 채 하나하나 펼쳐 서명에 들어갔다. 행정명령은 의회 입법 절차 없이 연방법 입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핵심 국정과제나 시급한 과제를 처리할 때에 한해 사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단결을 강조하며 미국인들에게 "적대자가 아닌 이웃으로 서로를 볼 것"을 촉구하며 힘을 합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는 상대와의 협력을 위한 게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제를 상당 부분 빠르게 지우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수천만명의 시민들의 반발심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시카 앤더슨 헤리티지액션 국장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부터 시작함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은 좌파의 파괴적인 정책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행정명령은 바로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라 연방정부가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다(EO on Preventing and Comba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1964년에 제정된 시민 인권 법령에 따라 성정체성이나 성



몬테나 주, Family Foundation 라스 솔로피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 명령을 비판하고 있다.

적 지향에 따른 직장 내에서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골자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곧바로 연방 차원의 반차별 지침으로 종교기관을 포함한 어떠한 직장이나 기관에서 성적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

바이든은 취임 전에 이미 교통부 장관으로 피트 부티지지(38)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지명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전통가치를 중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 미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17건이다. 코로나19 관련 4건, 이민 관련 6건, 국제기구 관련 2건, 환경-인권 관련 3건, 기타 2건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한 조처를 뒤집은 명령이 11건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 서명이 취임 첫날 많은 것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오늘 서명하는 행정적 조처 일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않은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를 잠재우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조처라는 대의명분 이면에는 민주당이 추구해온 '성 정체성'에 따른 소수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관련된 행정명령이 감춰져 있다.

수자 정책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당선되자마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언급과 정책 방향을 지음
△트랜스젠더의 군대 복무 금지
△의료 보험 제공자가 트랜스젠더와 HIV/AIDS 환자를 상대로 치료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

△해의 대사관에서 프라이드 깃발(Pride Flag, 성소수자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긍정과 서로 간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내거는 무지개 깃발)을 내거는 것을 금지

△2020년 6월, 대법원이 성정체성을 이유로 일 자리에서 차별받거나 해고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법무부는 이 판결을 무시하는 32가지 정책과 행정 명령을 시행 중

△공공 노숙자 쉼터가 트랜스젠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입양 단체가 LGBTQ 커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전 트럼프 대통령의 LGBTQ+ 정책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질주할 수 있다는 게 보수주의자들의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성소



약함 인정하는 섬세한 리더십 요구된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 공동체 개선/발전에 기여하는 리더십 소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름지기 리더란 강하고 자신 있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은 힘 있게 밀어붙이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려는 리더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용감하게 인정하는 리더를 더 높이 평가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 자신이 천하무적이라는 그릇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뒤서 결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리더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관심을 둔 리더를 선호한다.

세상은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따라서 리더는 계속 배우고 적응해야 한다. 이때 가장 적절하고 적용 잘하는 리더란 자기 한계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키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진심으로 열린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다. 그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건설적인 비판과 반대 의견을 스투럽없이 말하게 하는 그런 포용적인 팀 환경을 조성한다.

무엇보다 그런 리더들은 진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실체를 이해하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자신이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비판을 기꺼이 허용한다. 그것을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전진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이처럼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섬세한 리더십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준다(Today's Leaders Need Vulnerability, Not Bravado).

- 1. 처음부터 진실 말하기
- 2. 리더가 가진 솔직한 생각을 나눠야 한다. 리더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기는 쉽지만, 좋은 리더는 진실을 말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윤희 목사



3면 푸른초장 이정환 목사



4면 특별기고 최수일 선교사

9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chpress.com / chpress@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나우는 자신을 위해 그들을 만들지 않는다."



초교과 복음주의 기독교대학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2021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ATS, ABHE 정회원

www.wmu.edu | (213) 388-1000 | admissions@wmu.edu

캠퍼스 트랙

-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글로벌리더십학
- 박사과정 : 목회학, 교회음악학

온라인 트랙 : LMS 무를 기반의 100% 온라인 수업

-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예배학, 글로벌리더십학
- 박사과정 : 목회학
-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사역자, 비영리단체 사역자

월드미션대학교의 특징

- Zoom과 Moodle 기반의 하이브리드 수업
- 최고의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
- 영성과 지성과 실천이 조화된 우수한 커리큘럼
- 그랜트(Pell & Cal) 및 다양한 장학금 제도
- 유학생 특별 장학금을 비롯한 유학생 서비스

성적 혁명 맞서, 하나님 주신 가치 지켜나가야!

<1면에서 계속>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에게 비자를 지급하지 않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다음과 같은 공약을 통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에서 성적체성을 이유로 차별 받지 못하도록 평등법 제정
△인터섹스와 트랜스젠더 국민이 정부 공인 신분증에 자신의 성적체성에 들어맞게 성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트랜스젠더 대상 폭력과 범죄 근절 정책 시행
△성소수자, 그 중 특히 흑인과 트랜스젠더를 위한 고용·거주 지원 정책 시행
△인구 조사에 성적체성 관련 데이터와 성소수자 대상 범죄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 정책에 활용

그리고 그 첫번째 공약이 마침내 행정명령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성소수자 관련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무조건 인권보호가 종교의 자유보다 최우선시 된다:

△트랜스젠더 국민도 군대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하나?
△기업이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LGBTQ+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나?
△임업 기관이 LGBTQ+ 커플에게 임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나?

이에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통합을 위한 요청(call for unity)"이 아닌, "획일성에 대한 요구(demanding uniformity)"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



다.

퍼킨스는 종교단체가 '성 차별 반대'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계약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성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사실상 팬데믹 속에서 더욱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앙인 및 신앙 기반 단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이 행정 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성경적·보수적 가치를 지닌 미국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물학적 현실에 대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행정 명령과 관련해서는 "남자 아이들에게 여자아이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래 성별과 관계없이) 그들이 선택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예

advocates expect to defend laws protecting children).

바이든 행정부의 인간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 성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 '젠더이데올로기'에 맞서, 남녀간 결합인 전통적 가정제도와 자라나는 아이들을 수호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몬타나, 알라바마, 조지아, 유타 주 등에서 사법적 전투를 추진 중에 있다.

남자와 여성의 성별(性別)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대신 사회·문화·심리적 성으로 간주되는 젠더(gender)를 통해 임의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사조에 민주당, 즉 바이든 행정부는 동참하고 있다.

결국 젠더이데올로기는 가정의 해체를 야기하는 매우 위험한 시대사조로서 21세기 젠더이데올로기의 핵심전략인 젠더 주류화는 남녀 고유의 성적체성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의 해체를 주요 목표로 삼기에 크리스천들은 이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면서 기도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젠더이데올로기가 강행되는 성혁명의 거센 파도 앞에 우리는 맞서 있다. 결혼 및 가족제도를 수호해야 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측했다.
퍼킨스 위원장의 예측은 벌써 실현되고 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보도되자마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수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최소 6개 주에서 태생적 성별 지키기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월드'지는 보도한다
(Conservative states ready for transgender battles: Pro-family

약함 인정하는 섬세한 리더십 요구된다!

<1면에서 계속>
그것이 충격적인 내용이라도 그렇다. 정말로, 극복해나갈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하다. 리더가 가진 약점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결국 장점이 되는 것이다.

2. 다른 사람에게 도움 청하기

리더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리더는 공동체의 책임자를 따지기보다 공동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리더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 솔직해야 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진정성을 보이면 사람들은 리더에

게 더 많이 헌신하고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발휘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게 된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더욱 강해진다.

3.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하지 않기

좋은 리더가 되는데 실패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의 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지만, 멀리 보면 리더는 강해지고, 공동체는 더 강해질 것이다.

4.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사람들은 리더의 솔직함을 평가하고 신뢰하며, 리더

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실패할 때 사람들은 리더의 판단력은 물론이고, 속마음도 의심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극도로 불분명하고 상호의존적 세상에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섬세한 리더십을 기르는 것은 리더 자신과 공동체가 개선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

진실 말하고, 도움 청하며, 편안한 상태에 머물지 말고 실수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리더가 자기 자리에만 머물러 하기 때문이다. 예전 습관에 의존하고 과거에 먹었던 것만 반복하려 드는 행동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강점에 의존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

의 거짓에 실망한다. 리더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잠시 호기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사라진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코 공동체 사람들을 설득

한 모습이다. 이를 위해 리더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류응렬 목사 (양성통증양장교회)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미국 제 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해서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전례 없던 심각한 국론분열과 사회불안 현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국회의사당 점거는 미 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두고도 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안전한 분위기에서 취임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아픔의 흔적을 강물에 흘려보내고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정치에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 해도 정치란 관심을 버려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었습니다. 다스리다는 히브리어 동사형 '말라크'이고 다스리는 왕은 명사형 '말레크'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담이 궁극적인 통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능능하신 통치자, 유일하신 통치자의 명을 받아 세상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대리 통치자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하게 통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 통치하게 하시고 훗날에는 왕들을 세워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왕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위임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백성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 받아 섬기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소중히 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다윗 같은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사울 같은 왕,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정치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가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아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도자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 어떤 통치권자라 해도 하나님의 눈에도 사람의 눈에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에 적용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대통령 선서의 전통을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릭 집안에서 1893년부터 사용해오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는 것은 문자로 된 책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책임을 진실하게 감당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섬긴 왕들을 선한 왕이라 평가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성격대로 통치한 왕을 악한 왕이라 부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취임식을 축하하는 시간에 미국을 대표하는 컨트리 가수 브룩스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는 보수 성향이 강한 오킨라호마 출신으로 공화당원이지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가사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을 따라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대통령직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상의 모든 왕은 한시적으로 통치를 위임받은 불완전한 왕입니다. 크리스천은 불완전한 지상 통치자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유일하고 완전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언젠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의 기쁨 속에 머물게 하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preachchrist@kcpc.org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Genesis 22:1-19 (2) NT Exegesis Text : Matthew 5:1-12
(3) Thesis Topic : Evaluate the "Online Worship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Theology
(4) Sermon Text : James 5:7-11 / Amos 8:11-14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①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②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③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④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⑤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l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③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c) Oral Interview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1.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1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5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8-21, 2021).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11(Tue)-12(Wed), 2021
b) Place : Eastern Reg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estern Region: Dae Hwang Korean Church(Rev. David Y. Kwon)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1.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1-12, 2021) through Rev. John Y. Song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hn Y. Song
Address : 1641 W. 185 th St , Gardena CA. 90248
Cell : (818) 282.0112 E-mail : kcapcpasto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Kim Jae Ho (646) 270 5987 / ezrakim59@hotmail.com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Y. Song (818) 282.0112 E-mail : kcapcpasto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총 회 장 : 조문휘 목사
서 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복지자세마나연구원 원장)

야곱의 영성

신앙의 백미는 노년의 삶을 통해 조망할 수 있다. 아무리 젊을 때 신앙에 열심이었다 해도 죽음이 가까울 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사람의 관 뚜껑을 뚫기 전에는 평가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조석 변으로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불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영적으로 대단한 삶을 살았던 선배들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들어 자신의 정체성을 변호하셨기 때

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므로 저들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을 뵈옵고 있는 존재임을 증거 하셨다.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지만, 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셨고 두둔하신 자들이다. 그렇다면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제 살아갈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옴에 따라 새삼 저

들의 삶이 부러워진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삶을 좀 더 들어가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브라함은 137세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작별해야 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후처를 얻었고(창 25:1), 그에게서 시므란, 욱산, 므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단을 낳았다. 후처에게서 얻은 자녀들은 대부분 믿음과는 상관없는 길을 간 자들이었다. 후손들 중에는 앗수르도 있다. 그리고 38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다가 죽었다.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들이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태어났고 세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이삭이나 성경은 간단하게 기술했고 우물을 몇 개 팠다는 기록 밖에는 주목할 게 없다. 그가 늙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되자, 늙은이에게 식탐이 강하게 되는 것처럼 이삭

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를 불러 별미를 부탁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짐승을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고 했다.

그것도 양떼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들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들짐승은 기름이 적고 담백하기 때문에 양고기와는 별미였기 때문이었으리라. 늙은이에게는 좀 더 맛있는 음식에 대한 본능적 식탐이 왕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네가 잡아온 짐승으로 요리한 별식을 맛있게 먹고 하나님의 예언과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하나님의 예언까지 잊어버리고 말았다.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 후로 43년 동안을 더 살았고(180세) 셋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그 43년 동안의 긴 세월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그 다음 야곱을 조명해보면, 그의 노년은 영성으로 충만했다. 세 사람 중에 훨씬 적은 147세를 살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 그의 노년은 찬란했다. 짐승에게 찢

겼다고 슬퍼하던 아들 요셉이 살았고 당시 강대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시식을 듣게 되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야 진실임을 알았고, 그 수레를 타고 풍요로운 고센 땅으로 70여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민을 떠났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2인자이었다. 절대적 권력을 손에 쥔 아들이 통치하는 애굽으로 갔으니 야곱의 욕망은 펄펄 끓어올랐을 것이다. 보통 사람이려면 매일 온갖 진기한 음식으로 배불리려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후처에 눈독을 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다. 그는 그곳에서 17년을 살았고 이내 수명이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였고 자녀들의 앞날을 예언해주었다.

요셉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두 아들로 하여금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어 인사드리게 한 후 그들을 물러나게 한 후, 땅에 엎드려 아버지께 큰 절을 드렸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의 2인자가 늙

고 초라한 아버지 앞에 큰절을 드리는 모습을 그려보면 눈물이 난다.

그 후 두 아들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끌어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을 차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드렸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야곱은 손을 엮바꾸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요셉이 손을 바꾸도록 말씀을 드렸다. 그 때 비록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영성은 한 없이 밝았던 야곱은 말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장자보다 차자가 더 큰 자가 된다. 요셉의 영성은 어두워졌지만 야곱은 밝아졌다. 기력이 쇠약한 상황에서 침상에서 꽃꽂이하게 일어나 두 손자를 축복했고, 자신의 시체를 이스라엘 땅 조상의 무덤에 장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살기 좋은 고센 땅에 산다 해도 약속의 땅이요, 영원한 도성을 그리워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야곱의 영성, 그 노년의 야곱의 찬란한 영성을 본받고 싶다.

locielo88@naver.com

푸/른/초/장

이정환 목사
(뉴저지순복음교회)



인생의 모든 삶은 관계에서 시작하여 관계로 끝을 맺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시작되고 성장하면서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 관계를 맺고 장성하면서 직장에서 상사와 사장과 관계를 맺고 살며 타인을 만나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아 가족의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인생은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대부분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록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화나 표정 그 밖의 몸짓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며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보다 말을 잘하고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뜻과 감정과 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궁창이 생겨나라 말씀하자 궁창이 생겼습니다.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창조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각인력입니다. 어느 대뇌화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말을 먼저 선포하면 모든 세포와 뇌의 영향이 말에 의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즉 말은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고 선포하면 뇌에 박히고 우리의 행동은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행동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견인력을 넘어 성취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 말 곧 '없다' '있었다' '한계가 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주의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말의 권세를 되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에도

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간교한 사단은 뱀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부정하도록 하여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이 죽고 저주 받은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영혼의 아름다운 말씀도 속사람 아담과 하와의 죽음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자 결국 파멸의 길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 끊임없이 얽혀와 낙심과 좌절 그리고 불안과 초조가 밀물처럼 물러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의 입술은 낙심과 좌절의 언어를 토해내게 되고 절망의 언어를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죄로 죽었다 안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말의 권세를 찾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

말하면 머지않아 산이 없어지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세 있는 사람이 말은 환경이 변화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말에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3)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당할 때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입술의 말로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문제, 생활과 직장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말로써 명령하고 계속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초반에 교회로 개척하며 고생하다가 허리디스크를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에 마비가 올 정도로 심하였으나 그러나 끈질긴 기

정란은 품으면 생명이 생기지만 무정란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로 항상 믿음과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문제는 항상 다가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날 때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1) 먼저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축복과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건강하다, 씩씩하다,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실제로 언어생활이 사람의 인생에 2/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업도 사업도 모두 말을 통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있고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잠언 13장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나와 마음이 꾀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어떤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화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파괴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5-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 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잘 못하면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테네시 주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5면으로 계속)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21절

창조적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인간의 말에도 창조적 힘과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동물이 아담과 하와 앞을 지나갈 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일러 주었는데, 그때 불린 이름이 곧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기 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권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입술의 말에도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

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간교한 사단은 뱀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부정하도록 하여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이 죽고 저주 받은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영혼의 아름다운 말씀도 속사람 아담과 하와의 죽음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자 결국 파멸의 길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언어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흠을 자랑하며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자 탐을 쌓았으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언어는 결국 혼잡하게 되어 나누어지고 흠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잃어버린 말의 권세를 되찾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31절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인간의 언어는 생명이 없는 언어와 같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에 소망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우리 입술의 말에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이 있어 길이 험하니 산을 뚫어 길을 만들면 참 좋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산이 없어지고 길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저기 산을 뚫어 길을 내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겠다"

도로 주님께 응답받고 치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후에 다시 다리가 저리며 허리디스크가 재발하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서 아- 다시 디스크가 재발했구나 하는 탄식과 함께 염려가 앞섰습니다. 며칠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문득 제 자신이 깨달은 것은 내가 이미 1년 전에 주님의 은혜로 치료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단호하게 기도하며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치료받았고 이미 치료되었다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고통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일 뿐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가라" 마음속에 나는 이미 치료를 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선포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자 통증이 씻은 듯이 떠나가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계란이라고 해도 유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제발 일어나 선한싸움을 하십시오(1)

법명은 “마약예방”이지만 실체는 마약범죄자를 “비범죄화” 시키는 단계적 발의안들 SB-57 Controlled substances: overdose prevention program(2020-2021). SB-73 Probation: eligibility: crimes relating to controlled substances(2021-2022)의 실체를 알아본다!

캘리포니아 Scott Wiener 상원의원(민주당, SF)이 이번에도 획기적인 사악한 발의안을 2개나 제출했습니다. 그는 2021년에 통과시킬 법을 논의하는 입법 회의에서 자신이 앞으로 제출할 여러 법안들 중 “decriminalize all drug use(모든 마약물 사용을 비범죄화)” 하는 법을 “단계적”으로 “여러 법안들”을 도입하여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는 작년 12월에 SB57을 제출한 것에 연이어 새해가 되자마자 1월초에 SB73을 제출하며 약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B57이나 SB73처럼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는 악법들은 교묘하게 여러 다른 법안 이름으로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또한, 악법들의 ‘악함의 차원’이 더 사악하게 진보되어 나온 것을 지난 10년 넘게 법안들을 first-hand로 보는 단계/대표 중 한명으로 저는 똑똑히 목격해왔습니다.

한 예로, Scott Wiener과 Cristina Garcia(민주당 상/하의원)가 성범죄자와 소아성애자에 대한 형벌을 낮출 뿐 아니라 법정과 경찰에 “성범죄자 또는 소아성애자로 명백히 등록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게 만든 법안들이 이미 있는데 바로, 2020년에 통과됐던 SB145, AB1145 같은 법안들입니다. 이들은 2012년에 통과된 SB1172에서 진보된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SB1172는 Jackie Speier(민주당, 상원)에 의해 제출됐었고 당시의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서명하여 통과된 법안입니다. “Ban Gay Conversion & Change of Sexual Orienta-

tion”이라는 법명으로 나왔는데, 법의 실체는 아이들의 성정체성(Sexual identity & orientation)의 혼돈을 정상화하고 소아성애자라는 명칭을 슬며시 “성정체성 sexual orientation” 중 하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단계별 법안들이 나왔으나 줄입니다. SB57, SB73 발의안들은 민주당 소속 Scott Wiener 상원의원이 제출하고 그 외 민주당 Susan Eggman, Bradford 상원들 외 Chiu, Friedman, Kamlager, Bonta, Carrillo, Ting, Wicks 하원의원들이 공동 제출했습니다.



SB 57과 SB 73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먼저 SB57같은 경우 마약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밀집한 도시들로 알려진 오렌조, 샌프란시스코 및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 마약 중독자가 의료 감독 하에 불법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Safe injection site 안전한 마약(주사) 사용장소”를 만듭니다. 자칫 말이 되는 법 같으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실행한 나라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미연방법 역시 상식적으로 위헌이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황당한 법입니다.

동시에 SB73은 헤로인, 아편 또는 아편유도체, 소금, 대마초, 펜시 클리 딘(PCP) 및 기타 위험한 약물의 사용자 및 딜러에 대한 형사처벌을 낮추거나 감옥에 안가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도입되지 않

은 LSD 및 마술 버섯과 같은 모든 환각제까지도 합법화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치는 것은 결국 다음세대와 자녀들의 미래!

이런 마약사용이 합법화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끼칠 영향은 또 다른 사악한 법(학교에서 마약을 정상이라고 홍보하고 권장하는)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미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을 가르치던 수업이나 특별 초청들이 사라졌기에 너무 훤히 보이는 결과를 조래할 것입니다.

Scott은 이 법안들이 중요성

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 범죄화는 인종 차별적이다...마약을 범죄화 하는 법은 그들의 감금률(Prison time)을 증가시켜 ‘흑인과 갈색 공동체’에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친다. 마약과의 전쟁과 대량 투옥은 정책 및 공중보건 실패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당스러운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SB 57, SB73에서 제안하는 “Safe injection site-안전한 마약(주사) 사용 장소”는 처음이 아니며 이미 실패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수년간 이와 같은 센터를 운영해왔는데, Heritage Foundation의 Christopher Rufo의 조사를 보면 “이런 장소들 안에서 안전이란 없으며 오히려 쓰레기, 범죄 및 여러 장애를 더 크게 증가시켰다는 리포트를 알려줍니다..

또한 2020년 검증된 부정/사기 선거자료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의혹을 일으킨 Swing State 중 하나였던 필라델피아는 미국 최초의 “Safe injection site-안전한 마약(주사) 사용장소”를 열 계획이었다가 중단됐습니다. 지난주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에 의해 ‘Crack House Law크랙하우스법’이라고 하는 연방법을 위반했기에 허락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80년대에 통과된 이 고마운 연방법은 규제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인쿠아어에 따르면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이 일이 생각보다 쉽게 통과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 바이든이 이미 캘리포니아의 법무부 장관인 Xavier Becerra(민주당)에게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이끌어달라고 했기에 그것이 승인되면 마약법의 형벌을 낮추고 감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게 될 수 있는 법안들 집행이 신속히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확인이라도 해주듯, 지난 7월 Becerra는 필라델피아의 마약 케이스를 지지하는 다수들의 Amicus Briefing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ttorney-general-becerra-joins-multistate-amicus-brief-support-public-health)에 참여하여 불법 약물 주입 사이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글을 맺으며

플라스틱 봉지사용도 몸과 사회에 해롭다고 법적으로 통제시키면서 그보다 더 위험한 마약범죄자들의 형벌을 낮추고 성범죄자들의 형벌을 낮추며 감옥은 아주 가볍게 또는 아예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법안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까요? 이런 건 정치니까 우리는 모르는 척하면 해결이 될까요?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일을 마친 다음 즉 사후에 감사를 해도 좋은 일이나 예수님은 먼저 일이 있기 전에 사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시편 100편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과 역경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감옥이 풀려지더니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상황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로 한 해를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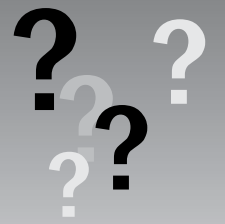
3)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며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언어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goodchurch@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교회의 장로요 한의사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약 25개 정도의 체인을 가지고 12명 정도의 직원과 의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에 전략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비즈니스 경영의 성경적 원칙을 위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미타에서 권영화 장로

A: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몇 번 읽고 성경의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었다. 둘째,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인생은 각자의 사명이 있다. 셋째,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에 집중할 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직업이란 영어단어를 “Voc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세상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목사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사람의 육신을 다루는 의사로서 내가 가진 의술로 사람의 고통을 치료하는 일도 가장 신성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pride)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인간존중(human respect)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온

성경적 경영원칙: 인간존중, 하나님이 주인되심, 거래의 기술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탁월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려면 경영원리가 “인간존중의 원리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교회를 목회하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IBM이나 렉스 컴 같은 기업은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존중”을 기업경영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Holiday inn의 창설자 켈몬트는 1956년에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고 인식하는 기독교의 원리 이웃사랑의 정신’에서 기업을 세우고 사업을 하기로 한다고. 비행을 타보면 스튜어디스들의 봉사 정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친절하고 손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서비스 정신이 탁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인되심(Lordship)의 원리입니다. 비즈니스의 경영철학은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진 것들의 많은 중요 영역이 이미 주인되시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부모, 종족, 탄생일, 남녀의 성별, 피부색, 외모도 나의 기질이나 재능도 창조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늘 그분의 자문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 회장 즉 회장되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셋째, 거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The art of the deal). 미 대통령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거래의 기술”이란 책에서 10가지를 말했는데 5가지만 소개합니다. 1)조각 생각하라 2)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라 3)발로 뛰면서 시장을 조사하라 4)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라 5)사업을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고된 직업이지만 어차피 평생 일할 전직입니다. 트럼프의 말처럼 엔조이하면서 즐겁게 일하십시오.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그는 체구가 작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자녀들이 그 아이와 노는 것을 금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무시했습니다. 외톨이로 지냈는데, 12세 때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 교회에 갔지만,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늦게 갔다 일찍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의 여운이 남아 앉아있던 교인들 틈에 끼어 나오게 됐습니다. 마주친 목사님이 말합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네가 누구 아들이지 알겠다. 네 아버지를 닮았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황하여 빠져 나가는 아이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세월이 흘러 그는 주지사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벤 윌터 후퍼! 테네시 주지사(1911-1915) 그는 후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날은 바로 테네시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한 사람의 축복이 이와 같이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신다는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우리는 감사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옮겨 주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똥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11:41)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을 마치거나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난 후 감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일을 마친 다음 즉 사후에 감사를 해도 좋은 일이나 예수님은 먼저 일이 있기 전에 사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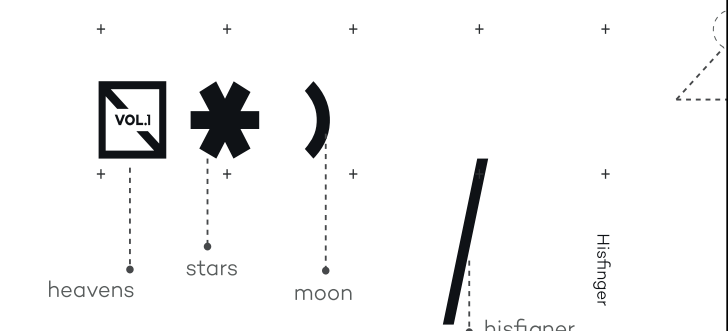
시편 100편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과 역경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감옥이 풀려지더니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상황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로 한 해를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며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언어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com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s8:3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리카의 하우스(HAUSA)

2300만이나 되는 하우스족은 중앙아프리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족 집단이다. 이들의 문화는 이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역사는 이민과 정복으로 점철되었고, 19세기 초 이후로 풀라니족(Fulani) 침략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러 세기 동안 원거리무역에 종사해온 데다가 그들 민족성 자체가 동화력이 있어서 하우스의 문화적 경계는 점진적으로 확장해왔다. 하우스 언어는 빠른 속도로 북부 나이지리아의 주요 언어가 되고 있다. 사하라 주변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이 하우스어를 또한 사용하고 있다. 토루베족



(Toroobe)과 펠라타족(Fellata)을 비롯한 풀라니족들 일부는 하우스어뿐만 아니라 하우스의 문화까지도 받아들였다. 2천만 이상의 하우스족은 나이지리아의 북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을 "하우스의 땅(Hausaland)"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동부의 수단과 에티오피아와 함께 대부분의 서아프리카 국가들에도 많은 하우스인들이 살고 있다.

삶의 모습

하우스족은 주로 농부나 양치기로서 또는 무역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재배작물로는 수수, 옥수수, 쌀, 양, 땅콩, 담배 같은 것들이 있다. 농부나 양치

기라 하더라도 2/3 정도는 농업이 아닌 일을 부업으로 가지고 있다.

하우스 무역상들의 특징적인 외모는 길게 늘어뜨린 가운과 수를 놓은 모자를 쓴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방 시장에서 가죽 제품과 철제 자물쇠, 마구 같은 물건들을 팔러 다닌다. 시장은 하우스 사회의 전통적인 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남자친구들과 친척들이 그곳에서 만나서 마을일을 의논하고, 옷을 잘 빼입은 처녀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곳으로 간다.

대부분의 하우스인들은 시골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의 농촌에는 2,000에서 12,000명 정도의 인구가 산다. 촌락의 내외에서 인구의 1/3에서 1/2 정도는 대가족으로 이뤄진 소규모 농촌부락을 이룬다. 이러한 혈연을 바탕한 경제단위는 가부장의 권위와 지도 아래 유지되는 것이다.

하우스의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들은 그들의 직업과 소유 재산에 따라 평민 또는 수장(chief)으로 분류된다. 결혼은 가까운 친척, 특히 사촌 등이 배우자로 선택되며 부계사회다. 부유한 하우스인들의 옷장에는 전통의상에 따라 수를 놓은 가운과 샌들, 가죽 슬리퍼 등이 있다.

하우스 여자는 12-14세에 대해 결혼을 한다. 이혼률이 높긴 하지만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하우스 여자들은 남자보다 교육의 기회가 적으며 외출에 제한받는 일이 흔하다. 여자들은 아이를 기르고 잡다한 가사를 하는 등의 일을 주로 맡고 있다. 밭일도 하고, 남자들이 수확하는 일도 돕는다. 남는 시간까지 시장 일에 쓰도록 하고 있으며 벌어들인 돈은 딸의 저당금에 쓰인다.

하우스족은 매우 근면한 민족으로 몇 가지 다른 직업들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군대에 있으면서 무

역과 상업을 하고 사회사업도 하며, 이슬람 전파에도 힘을 쏟는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종교와 상업 영역을 독식하게 됐다.

신앙

서기 1500년경 이슬람교가 북부 무역상들에 의해 하우스족에게로 들어왔다. 도시에 사는 하우스족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즉시 받아들였다. 1804년과 1808년에 "성전(holy wars)"이 일어나면서 하우스족은 주변의 강대한 이슬람 종족인 풀라니족에 정복됐다. 그 때 많은 시골사람들도 강제로 또는 돈을 받는 대가로 무슬림이 됐다.

오늘날 하우스족은 완전히 무슬림 민족이다. 그들은 주변 민족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단히 독실한 무슬림으로서 이슬람의 의식들과 축제 모두를 준

수한다.

필요 하는 것들

하우스의 문화는 이슬람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남부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강한 편견을 갖고 있으며,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하우스인들을 강렬히 박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하우스 사회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이 있음에도 불행한 일은 예수께 마음을 연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슬람이 하우스의 무역상들과 종교인들에 의해 서아프리카 전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우스인이 무슬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에 계속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무엇보다도 하우스족에게는 현존하는 기독교 자원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목회자 '인종문제' 설교 점점 꺼려

미국교회 목회자들이 4년 전에 비해 인종문제 관련 설교를 꺼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국은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따른 인종차별 반대시위, 인종 간 대립이 극심했던 대선 등을 겪었다. 목회자들이 인종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도 이를 꺼리는 것은 인종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사회의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최근 목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도들이 인종문제를 주제로 한 설교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7%(2016년)에서 17%(2020년)로 4년 만에 10% 포인트 증가했다. '환영할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4년 전 90%에서 16% 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환영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한 목회자는 57%에서 32%로 급감했다.

목회자들이 느끼는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최근 2년간 인종화합을 주제로 한 설교에 대해 성도들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2%가 '그렇다'고 답했다. 4년 전(5%)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성도들의 부정적 반응이 설교 주제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도 나왔다. '최근 2년간 인종문제에 대한 설교하지 않았다'고 답한 목회자는 4년 전 10%에서 16%로 늘었다.

스콧 매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총괄디렉터는 "목회자들이 설교 내용을 성도들이 원하는 주제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사역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목회자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성도들의 큰 반발 없이 인종문제를 주제로 한 설교를 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4년간 이를 주제로 한 설교를 피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부정적 반응이 늘고 있다는 점은 미국교회 강단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조사에서는 흑인 목회자(93%)가 기타 인종(74%)이나 백인(73%)에 비해 '성도들이 인종화합을 주제로 한 설교를 환영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높았고, 교회 규모가 클수록 '인종문제를 주제로 설교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화와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3.4%다.

미, 73년 이후 낙태 6200만건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판결 이후 미국에서 6200여만건의 낙태가 행해졌으며, 9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미국 최대 낙태 반대 단체인 미국생명권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가 지난 21일 발표했다.



미국생명권위원회가 펴낸 '미국의 낙태 상태'라

는 보고서에 따르면 73년 1월 22일 해당 판결 이후 낙태가 헌법으로 보장되면서 지금까지 6250만 4904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다. 낙태 건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구트마허연구소(Guttmacher Institute)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미국생명권위원회 캐롤 토비아스 대표는 "끔찍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낙태 반대자들이 낙관적일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 90년 이후 해마다 낙태 건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160만 8600건을 정점으로 2013년엔 95만8700건, 2015년에는 89만9500건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토비아스 대표는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미국을 로 대 웨이드의 치명적 유산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낙태 건수의 하락은 미국생명권위원회 같은 낙태 반대 기관들의 노력이 주요했다. 기관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어머니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보도했다.

토비아스 대표는 "법적 노력은 우리 일의 핵심이며 이는 미국에서 낙태를 종식하는 열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생명 존중 교육과 법률적 노력은 우리 문화와, 예기치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삶에서도 빛난 '믿음의 홈런왕' 앵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예의전당에 헌액된 전설의 홈런왕 헝크 에런(사진)이 지난 22일 86세를 일기로 별세하면서 야구사에 남긴 그의 기록과 인생, 신앙이 재조명되고 있다. 에런은 1954년 데뷔 후 23년간 선수생활을 하면서 통산 755홈런 3771안타 2297타점을 기록했다. 야구 역사상 20시즌 연속 20홈런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다.



1974년 4월 8일 베이브 루스의 종전기록(714개)을 경신하며 715호 홈런을 쏘아올린 장면은 메이저리그 팬들이 뽑은 야구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 2위에 랭크돼 있다. 당시 에런은 백인들의 우상이자 야구 영웅이었던 루스의 통산 홈런 기록에 다가서면서 극심한 인종차별과 협박에 시달렸던 소속팀이었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구단에는 인종 모독과 은퇴를 종용하는 협박 편지 100만여통이 쏟아졌다. 그는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 경기 전날 경기장에서 잠을 잤지만, 필드에 선 묵묵히 자신의 플레이를 펼쳤다.

새 홈런왕으로 등극한 직후 가진 인터뷰는 그의 견고한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회자된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에런은 "타석에 섰을 때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나님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날 위협할 수 없다고 믿었다"고 답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홈런 기록을 세운 날 집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에런은 1976년 은퇴 후 자선활동을 펼치며 선교적 삶을 보여줬다.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흑인들의 목소리도 대변했다. 에런의 별세 후 미국 전역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로 "에런은 편견의 벽을 깨

는 게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 그는 미국의 영웅이었다"고 추모했다.

유전자편집기술 연구, 기독교인 반대 높아

전 세계 기독교인은 빠르게 발전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계 20개국의 성인(각국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사람의 유전적 특성을 바꾸기 위한 편집 기술을 연구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3명(31%)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이 무종교인에 비해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미국은 기독교인(21%)과 무종교인(47%)의 찬성 응답 비율 차이가 26% 포인트로 조사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조사국 중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프랑스(16%)는 유일하게 기독교인(16%)의 찬성 비율이 무종교인(15%)보다 높게 나왔다.

대한민국 응답자의 찬성률(47%)은 아시아 지역 조사국 중 인도(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찬성률은 39%에 그치며 무종교인 찬성률(62%)과 13%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아시아 조사국 중 가장 편차가 큰 수치다.

한국VOM, 파키스탄 기독교 청년 지원

한국 순교자의소리(VOM)는 파키스탄 편자브 주 나로왈시의 기독교인 청년 세 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VOM 현수 폴리 대표는 "청년들이 성탄절을 맞아 모닥불을 피웠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들이 코란을 불태웠다고 주장했다"며 "청년들이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경찰에 잡혀 갔다"고 전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코란을 불태웠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1997년 2월 카네일 지구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코란을 불태웠다는 허위 주장만 믿고 3만명 넘는 무슬림이 이들의 집과 교회에 불을 질렀다. 2005년 11월에도 상글라할 지역의 교회 세 곳이 같은 이유로 불태웠다.

기소된 세 청년이 사는 풀티무함마드사데크 마을의 주민 대다수는 무슬림이고 40가정만 교회에 다닌다. 사건 직후 파키스탄의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경찰과 협상해 세 청년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무슬림이 운영하는 벽돌가마에서 일하던 가족들은 모두 실직했다.

폴리 대표는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이 신성모독 중범죄로 기소되면 형을 줄이기 어렵다"며 "우리와 동역하는 파키스탄 '에스라불협회'가 경찰이 공정한 조사를 작성하도록 신속히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VOM은 세 청년의 가족을 돕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순교자 및 수감자 가정 지원 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코로나는 불평등 바이러스..."

세계 최빈곤층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을 극복하는 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부

유한 100명은 불과 9개월 만에 재산을 온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각국 정부에 더 급진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옥스팜은 25-29일 닷새 동안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다보스포럼)를 맞아 발표한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에서 "역사는 기록이 시작된 이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킨 최초의 전염병으로 코로나19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스팜이 보고서를 준비하며 79개국 295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7%는 코로나19로 자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거나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0명은 불과 9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산 손실을 거의 다 회복했다. 옥스팜 분석팀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해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정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2월 19일을 100으로 놓고 이후 이들의 부의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난해 3월 직후 억만장자들의 부는 70.3%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99.9% 사실상 원상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와중에도 세계 최고 부자 10명의 재산은 지난해 3월 18일 연간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 발표 이후 연말까지 되레 5400억달러 늘어났다. 옥스팜은 "이들 10명의 재산 증가분만으로도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게끔 막을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억만장자들과 달리 취약계층은 코로나19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미 수익명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과 기아에 직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빈곤 인구는 10년이 지나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세계은행(IBRD)은 현재의 불평등을 각국 정부가 방지할 경우 하루 5.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 인구는 2030년까지 5억1000만명으로 늘어나고, 총 빈곤 인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옥스팜은 코로나19라는 전 인류적 위기 속에 "팬데믹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정책이 갑자기 가능하게 됐다"며 "각국 정부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행동한다면 빈곤층은 10년이 아닌 3년 안에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옥스팜은 '신자유주의 탈피'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각국 정부는 '긴축 재정'이라는 낡은 방식을 버리고, 부·성별·인종 등의 이유로 보건·교육 등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억만장자를 경제실패의 징후로 간주하고 최고 임금제 및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옥스팜은 특히 이번 위기를 가장 부유한 이들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1400억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은 실업의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아동과 노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보고서가 예시로 든 아르헨티나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부호들에게 임시적으로 부유세를 부과했고 3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빈곤층 및 중소기업에 제공할 의료용품과 구호품을 구비하는 데 사용됐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4. 박일우(?-?)

박일우는 평양 숭실대학 출신으로 유학차 도미했다. 그는 늦어도 1916년에 미국 거주 리버사이드(하번)으로 이주했고, 이곳 링컨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하번 한인장로교회에 등록했을 것으로 본다. 2년 후 6월에 그는 하번의 링컨 관립중학교를 졸업했다.

나성한인교회 영수

링컨중학교를 졸업한 1918년 연말에 박일우는 나성으로 이주했고, 이듬해인 1919년 2월 그는 아리조나주 찬들러로 이동했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 서였을 것이다. 그해 가을에 그는 나성으로 돌아왔고, 오늘날의 바이올라 대학인 나성성경학교에 입학하였다.

나성한인교회 순행 목사였던 민찬호가 1919년에 하와이로 전임한 후 홍치범이 순회 목사로 그를 이었다. 당시 나성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동포 중 교회에 출석한 장년 교우는 40여 명이였다. 박일우는 노진국과 염세우와 함께 본 교회 영수로 재직했다. 그는 민찬호가 없을 때 다른 두 영수와 함께 예배를 인도했을 것이다. 본 교회에는 영수 외에도 집사와 권찰이 있었다. 정인영, 정지영, 염달욱, 조영환, 주영환 그리고 전진이 집사였고, 김이선, 박순애 그리고 임화연이 권찰이었다.

그해 11월 25일에 신한민보는 신실한 교회 직원과 예배당이 편리하고 설비가 잘 되어 있어 부흥의 희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가 영수로 있었을 때의 예배당은 두 곳으로 보인다. 1910년대의 예배당은 올리브 코트 2번지였고, 1920년대 초의 예배당은 노스 벙커힐 스트리트 240번지였다. 그의 영수직은 산타바바라로 이주하던 1921년 3월까지로 보이는데 1년 4개월 정도의 그의 영수 활동은 찾기가 쉽지 않다.

산타바바라에서 나성으로 다시 돌아온 박일우는 1923년의 10월에 김영희와 윤병희와 함께 나성한인장로교회 장로로 선정되었다. 그의 신앙관은 1924년 2월 7일에 신한민보에 게재된

아래의 "종교학설"에서 엿본다.

-세인의 정신을 지배함은 종교에서 시작하고 물질은 지배함은 과학에서 생하나니 이 두 가지는 인류 사회에 있어 아니고 가장 긴요한 요소라. 오인이 생활함에는 의식주가 문제요, 요소가 됩니다. 그 3상이 구비하여야만 사가 충실합니다. 국가의 흥망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생활상 기초를 확실히 세우려면 의식 두 가지 아니면 가늠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관자의 말에 의식이 족하여야 예절을 안다고 하였습니니다. 과연 물질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발명도 무비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니 정신생활을 요구함

이 오인의 가장 필요함이다. 과연 충분한 정신만 있으면 물질은 자연히 수입됩니다. 정신병자에게는 물질이 태산과 같을지라도 그것이 쓸데없고 설혹 물질이 다 내 것이 될 때도 내 생명 내 정신을 살하면 그 물질이 무소용이니 정신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그 물질을 어찌 건사하며 보전하리오. 종교는 곧 사람의 도덕적 정신을 지배하는 일인도를 가르침이니 바른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터이나 그 길의 목적은 오직 하나인 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이다. 하나님은 하나이니 찾아가는 방법은 각각 달라서 예수교로도 70여 종이고 천도교로도 17여 종이며 기타 유교 불교 중에도 50여 종이다. 내 지에도 백년교 태국교 대종교 단군교 시천교 예수교 불교 유교가 있고 백인들에게는 그 수가 얼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종교는 각 개인 실례의 정신상 기쁨과 즐거움과 안위를 주므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필요하며 근본을 도

러내어 부패한 사회를 혁신케 하며 사회에 생명을 중생케 하여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공경하여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는 말씀하기를 상제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잠1:7),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함이라, 나를 사랑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거든 어찌 무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리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배고프지 아니하여 속에서 생명이 감과 같이 흐르며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하였으니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바랍에 희망이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겠다 하였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없습니다.

예수교와 유교, 불교의 교지는 대대동소이하나 죄를 회개하고 적선하라는 것과 극락세계를 원하는 것은 하나이다. 후에 영혼이 천당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불신하는 사람은 장차 한번 시험하여 보면 각각할 터이오. 그 외에 다른 극락세계는 곧 눈으로 보는 세계이니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귀 빈천을 물론하고 몸이 기쁘고 즐겁고 새로워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이외다. 그이는 마음의 근심도 없고 걱

다. 독자 제군이여, 우리가 참으로 민족적 자유를 원하며, 민족적 통일을 원하며, 민족적 국권 회복을 원하시거든 우리도 각각 종교적 도덕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터를 삼아 굳어진 우리 집을 다시 만세 만석 위에 건설하기를 위주합시다."

그런데 1923년 겨울에 나성한인교회가 35, 6명의 뜻으로 나성노회에 가입했다. 당시 담임목사에 홍치범, 장로에 이삼음, 윤병희, 김영희, 그리고 집사에 임지영, 황성택, 정인영이 선임되었다. 이후 몇 사람이 사임하면서 이듬해 1월에 제직원은 윤병희 장로와 정인영 집사와 정규만 집사뿐이었다. 그해 3월에 박일우는 김영희, 황성택 등 24, 5명과 함께 연명으로 청원하여 현 제직원을 불신임하였다. 이에 나성노회는 안식년으로 나성에 온 내한선교사 윌리스 언더슨 선교사를 파송하여 당회를 해산했는데, 그해 4월

성신학교에서 신학과와 음악과를 아울러 마치고 졸업했다. 그는 1924년 가을에 나성 인근에 위치한 옥시덴탈 대학에 편입했고, 이듬해 5월에는 본 대학 정치학과 4학년이었다.

나라 사랑

박일우의 나라사랑은 1917년에 대한인국민회 하번지방회 학무원이 되면서 나타난다. 이듬해 그는 서기와 학무원 그리고 한국학교 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19년에도 학무원으로 선임됐다. 나성으로 이주한 그는 1919년 나성지방회 서기로 활동했다. 그달에 아리조나주 찬들러로 이주한 그가 김형순의 주택에서 가진 대한인국민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사회를 맡았다.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 특과원 김정진이 아리조나 찬들러를 방문하였을 때인 1919년 3월 20일에 대한독립만세를 축하하는 동시에 특과원을 환영하였다. 이때 박일우는 담



나성한인장로교회
(240 N. Bunker Hill St, LA)

사순서를 맡았다. 이날 독립의연금으로 200여 달러를 거두어 중앙총회 재무한승곤 목사에게 보냈는데 그는 유학생의 신분에도 거금 5달러를 냈다.

박일우의 나라 사랑은 그가 맡은 직책에서 볼 수 있다. 거주 산타바바라를 거쳐 뉴욕으로 이주한 1921년 12월에 임 초를 대신하여 선출된 북미총회

유학차 도미 나성한인교회 옥시덴탈대학 졸업 나성한인교회 영수, 장로(장로교회) 대한인국민회 학무원 등 조국사랑 앞장, 1927년 귀국 평양거주 2년후 행방 묘연

정도 없으즉 평안할 것이외다.

미국 신시네티에 있던 사람을 말하기를 아메리카는 6대주에 제일 으뜸이요, 미국은 아메리카 제국 중에 제일 강국이고, 나의 포도원은 미국 각주 중에 제일가는 맛이고, 내 집 아내는 미국 내지 중에 제일 이쁘다. 그러므로 내가 세계 인류 중의 제일이라 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평안한 것은 사실이외다. 이 세상은 마치 활동사진과 연극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희비극을 구경하다가 뜻밖에 꿈과 같은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참으로 영원한 극락세계, 영원한 생명 세계는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종교이외다. 종교에는 부강력도 있고, 인애력도 있고, 모험력도 있고, 희생력도 있고, 사생력도 있고, 자유력도 있고, 기동력도 있습니다. 옛날 앵글로색슨이 야만 정도에서 부강 문명에 이르는 종교이요, 영국을 제조한 크렘웰도 종교이요, 법국의 운명을 보전한 존포도도 종교이요, 미국의 건설하고 독립한 워싱턴과 링컨도 진실한 종교가들이외다. 현대 영웅들도 다수가 종교가외

에는 쌍방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당분간 나누어 예배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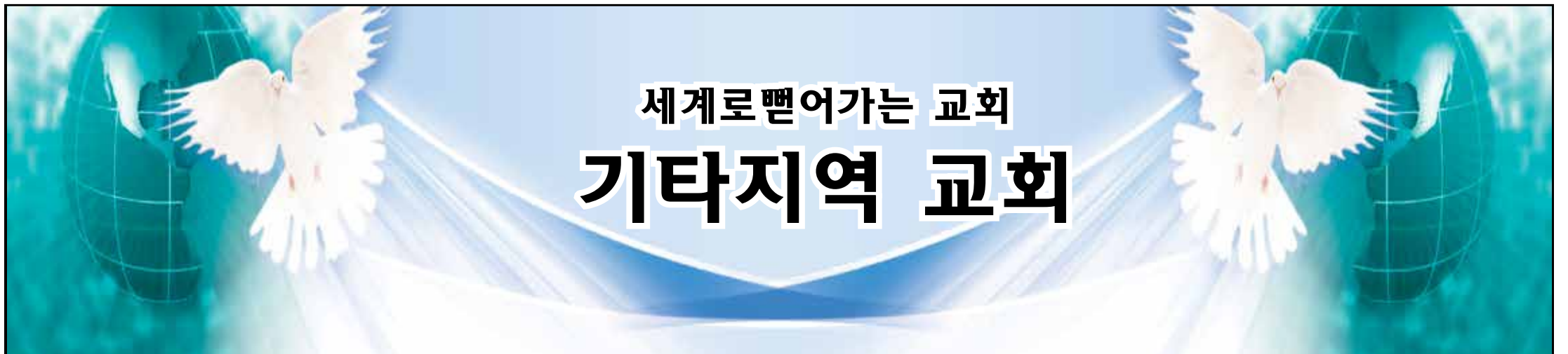
교회의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1924년에 박일우는 두 가지 큰일을 해냈다. 나성에 거주하던 그레션 여사가 한국의 가난한 여학교나 어려운 곳에 보조할 목적으로 한국 찬송을 가르친 백인 남녀 학생과 나성한인교회 교인의 출원으로 3월 9일 주일에 베니스 제일회중교회에서 특별모임을 가졌다. 본 교회 백인 목사의 인도로 개회하고 그레션 선교사가 한국 국기를 설명하였고, 안도산의 딸 안수산이 한국 찬송을 불렀으며, 백인 남녀 학생이 한국어 찬송을 불렀고, 김연실 여사가 한국 찬송을 독창한 후 박일우가 영어로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이후 헌금순서를 가졌고, 백인 남녀 학생 4명이 촛불을 켜고 예수님의 빛을 전했으며, 그레션 여사가 국어로 쓴 기를 본 교회 주일학교에 선물했고, 그레션 여사가 기도한 후 폐회했다. 그날 헌금한 총액은 200여 달러였다.

둘째는 박일우가 1924년 3월에 나

제13차 대의회 헌장 수정위원, 나성으로 되돌아온 이듬해인 1923년 3월에 선임된 나성지방회 총무, 그해 10월에 지방회장의 사임으로 선출된 대리회장, 내지수재구제금으로 1달러를 낸 다음 달인 12월에 선임된 다음 해 총무가 그것이다. 그리고 1923년에 신한민보에 기고한 "각오"와 "정돈되지 못한 오늘 우리의 시국"과 이듬해에 게재된 "남가주 아동교육문제"나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과 독립운동"에서 그의 나라 사랑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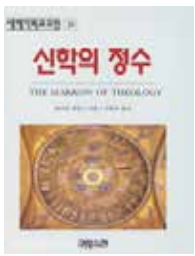
신한민보의 무무기를 낸 2달 후인 1927년 10월 7일에 박일우는 나성의 항구 롱비치에서 이창성과 함께 귀국했다. 도미한 지 2년인 1929년에 평양에서 살던 박일우는 이봉구와 김호연 등 50여 명과 함께 도미동포친목회를 조직했다. 그런데 미국 유학생들이 취직이 어려워 농촌으로 돌아가는 이가 많았다고 한다. 박일우에 관한 그 후의 이야기는 묻혀있다.

damien.sohn@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배 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목, 수, 금, 토, 일: 주일예배: 오전 11:00, (토)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12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nychurch.org 6554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노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c.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jkc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함향후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k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4)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5)

2. 구조와 내용분석

책의 구조

'신학의 정수'의 구성은 일련의 범주들로 진리를 나누고 세분화하는 라무스 체계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에임스는 제1권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교리로서 신학은 첫째 신앙(1권 1-41장) 곧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를 말하고, 제 2권에서는 순종(2권 1-22장) 곧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가로 나뉜다. 이 두 핵심 범주인 신앙과 순종은 에임스의 전체 신학체계가 흘러나오는 원천을 이루고 있다. 1권에서 신앙의 개념, 2

나눔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1권 5장) 확 인된다. 또한 하나님의 유효성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유효성을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능력(엡1:11-36)으로 정의한다(1권 6장).

2)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그의 유효성(권능)으로 제1권 제1장 하신 일로 가르친다(1권 7장). 그는 모든 일이 창조와 섭리 속에 예 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히 선하신 기쁨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1권 8.9장).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는 창조질서 전체에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피조

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수적인 원인은 사탄이며 사탄의 첫 번째 죄는 교만이다. 사탄의 유혹은 허위와 왜곡인데, 사탄은 진리와 선한 것을 가 장하여 허위로 미혹시키고 악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한다(1권 11장).

4)죄의 결과 그런데 인간은 이 조건적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비참하게 죄에 빠졌다. 인간의 타락은 영적이고 육적인 죽음과 원죄의 유전을 포함한 심각하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 진술한다. 죄의 결과는 죄책과 부패와 형벌이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인 죽음에는 두 단계, 즉 발달 단계 완성이 있다. 또한 죽음에는 두 부분, 즉 실제적인 형

파라 하나님에 대한 죄, 인간에게 대한 죄로 구분된다. 죄는 그 결과에 따라 양심을 파괴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 주도적인 죄와 경미한 죄, 의서받을 수 있는 죄와 받을 수 없는 죄로 구분된다(1권 14장).

내적인 죽음은 육체 중 내적인 선한 것들, 즉 건강과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죽음의 완성은 영원히 지속되는 최고의 형벌인데, 이는 상실과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무한하다. 상실의 관점에서 영적인 죽음의 완성은 인간의 하나님의 존전, 현존, 은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버려짐을 의미한다. 죄의 전과는 두 가지 부분, 즉 전가(imputation)와 실제적인 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교리로서 신앙과 순종 삶의 다양한 표지와 열매 통해 자신의 신학체계 설명

권에서 선행에 대한 칼빈주의적인 소명에 입각한 순종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다양한 표지와 열매들을 통해 자신의 신학체계를 설명한다.

물인 인간에게 행하시는 특별한 통치는 행위언약이라고 한다.

3)인간의 타락 인간을 만들 때 제정된 인간의 타락(아포스타시스)과 회복(아나스타시스)은 천사들에게는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다. 인간의 배교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순종으로부터 타락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에 대한 위반이다. 타락에 대해서는 범죄함과 죄의 전과를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불순종의 첫 번째 운동과 단계는 마 음의 교만으로 인한 일종의 우월감에 대한 전도(顛倒)된 욕망이었다. 범죄의 주요 원인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의 남용에 있다(전7:29).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면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의와 은혜

벌 즉 박탈의 부분과 양심의 형벌, 적극적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죽음, 즉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구원의 은사들을 빼앗겨 버렸고 그의 본성은 약화되었고 전도되었으며 손상되었다(1 권 12장).

5)원죄와 자범죄와 죽음 원죄는 전인이 부패(corruption)한 것으로 인간의 전체 본성의 성벽적인 일탈, 혹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함이다. 자범죄는 인간 행위의 일탈 혹은 하나님의 법의 거 역을 말한다(요일3:4)(1권 13장). 자범죄는 태만(ommission)의 죄와 범과(commission)의 죄로 구분된다. 자범죄는 그 주체에 따라 마음의 죄, 입의 죄, 행위의 죄로 구분된다. 또한 그 대상에

달로 구성된다. 원의를 잃어 버림과 함께 모든 육체적 능력의 무조화와 왜곡이 따라 오며, 이는 하나님에 의해 인 가된 것을 수행하는 정당한 방식에 적대적이 되게 된다. 이런 인류의 배교로 인해, 우리가 지금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생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1권 15-17장).

6)중보자와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직분 인간을 위한 회복에는 구속과 적용이 있다. 구속은 회복의 첫 번째 행위이며, 적용은 두 번째 행위이다(1권 19장). 구속에는 두 가지 부분이 존재한다. 하나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humiliation)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exaltation)이다. <11면으로 계속>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두려움 앞에서

함께 사는 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딸이 양성 판정을 받은 날부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종일 방안에 갇혀 있느라 소화도 불편한 딸에게 하루 세 번 식사를 영양이 있게 챙겨주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딸하고 격리는 물론이지만 잠자는 시간 외에는 종일 마스크를 해야 하고 딸이 사용한 모든 식기를 끓는 물에 삶는 등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인 부담도 컸다. 첫 일주일에는 몸살, 열, 기침 등 바이러스 특유의 증상은 있었지만 그런대로 가뭇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둘째 주로 접어드는 날부터 다시 열이 나면서 산소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Urgent care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서는데 딸이 아무래도 불안해서 내 차로 우를 따라갔다. 혹시라도 가다가 운전이 힘든 상황이 되면 여짜나 염려가 되어서였다. 딸의 차를 따라 가면서 위급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하는 동안 기도 친구들에게 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마치 처음 유치원 가던 날, 어린 딸을 혼자 학교에 들여보냈던 안쓰러운 마음으로 urgent care 건물로 들어가는 딸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과외장에서 세 시간이 지나도록 딸이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가 응급실로 가야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면회도 안 되는 코로나 병동에 입원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몰려왔다. 감사하게도 바이러스가 폐렴으로 발전되었지만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니 집에서 산소 공급을 하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산소가 배달된 날 이후로 온 신경이 다 딸이 머무는 방으로 쏠렸다. 산소가 내려가서 삐삐 소리가 나면 긴장이 되고 기침소리가 계속되면 마음이 오그라들었다. 방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메시지와 전화로만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더 힘들었다. 그 가운데 지인들의 격려가 힘이 되었다. 먼 길을 찾아오셔서 집 앞에서 기도해주고 가신 목사님과 장로님, 마켓을 봐 준 친구, 약 심부름을 해준 친구, 음식을 집 앞에 놓고 간 친구 등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잠을 잘 시간이 되어서 전화로 딸에게 밤 기도를 해주고 내 방문을 닫고 나면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을 하였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어온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중에 최악의 상황들이 갑자기 가능성을 지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남편이 천국에 간지 삼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앰블런스 타고 병원으로 가던 그 때가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용히 복도로 나와 딸 방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 구하기도 하고 두 손을 들고 서성이며 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였다.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절규와 두려움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눈물 속에 있는 나에게 말마다 말씀으로 다가오셨다.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렁이 같은 아픔이요."라고 부르시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해주셨다. "딸아 안심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동안 익숙했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 이 되어 들려왔다.

나이에 비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고생은 했지만 둘째 주가 지나면서 딸의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담당의사로부터 격리를 서 서히 해제해도 괜찮다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 싶어서 마스크를 쓴 채로 모이 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다.

몇 주간 딸의 감염으로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도 되었다. 딸이 철저히 격리하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해야 했던 하나님 아버 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로 고통 받으며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기도가 더 진지해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 현실로 다가오는 두려움 앞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며칠 전 딸하고 오랜만에 데스칸소 가든을 찾았다. 동백꽃이 피기 시작한 정원을 함께 걸으며 일상의 작은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된 그 시간이 참으 로 소중한 감사했다. lpyun@apu.edu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m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성경: 오후 09:00 금요침례: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p> <p>영어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주일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694, www.1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p> <p>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p> <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성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합중: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전 일교: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p> <p>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찬양예배: 매 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e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어린이 개혁 교회</h4> <p>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p> <p>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오전 6:30(토) 금요공부기도회: 매월 목, 화, 일 금요영양 기도회: 매월(목) 오후 7:30</p> <p>Tel. (8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부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p> <p>1. 멕시코 빈선학교 교수 2. 김나눔선 신학대학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찬양을 합시다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한국에서 2020년에 트로트 열풍이 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K팝 아이돌의 꿈을 꾸며 현대 음악에 심취하여 트로트는 철저히 외면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송국에서 트로트 경연대회를 방송할 때 중장년층에만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트

로트 인기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전혀 없을 것만 같았던 트로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열광하게 하였습니다. 트로트의 열광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트로트 특유의 벨

로디와 가사들에 사람들이 동감하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이 음악에 일치할 때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트로트 열풍이 불 때 우리가 사는 북미주에서는 '길을 만드시는 주'(Way

Maker)의 찬양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불리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이며, '큰 기적을 행하는 주'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주'이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라는 찬양은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소망이 됩니다. 이 찬양을 2020년 4월에 처음 들었을 때 저의 감정이 얼마나 뭉클하고 힘이 나서 목청껏 따라 불렀는지 모릅니다. 함께 성도님들과 '길을 만드시는 주'를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승리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찬양을 부르며 힘

겨운 시간들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오 신실하신 주", "구주 예수 의지함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등의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도우미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루 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찬양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힘과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이며, 은혜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롭습니까? 고달픈입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찬양을 날마다 부르면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편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을 부르며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yosupbois@hotmail.com

특별기고



최수일 선교사

코로나 백신이 666인가?

한 때 제품의 뒷면에 붙어있는 바코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코드이니 절대 받지 말라는 주장이 많이 나돌았다. 의료용, 금융용, 매매용, 위치추적용, 보안허가용...으로 인간의 몸속에 장치하는 생체 칩을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자신의 형상을 심기 위한 것이므로 어떤 종류의 칩이든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Quick Response) 코드로 빠르게 교체되고 또 그런 주장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음으로 베리칩에 대한 주장이 한 풀 꺾인 듯 했는데, 뜬금없이 코로나 백신이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주입하는 장치라는 주장이 나돌아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단일정부를 구성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고 노예화하기 위하여 강제로 생체 칩을 맞게 하는데 그 화학물질이 코로나 백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매 기능을 감당할 전자 칩을 손과 이마에 맞도록 한다는 것이다. 백신을 맞고 DNA가 바뀌어지면 이미 자유의지를 상실하였으므로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명령을 받아 순종할 뿐이므로 칩을 심는 것은 매우 쉽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사이보그나 AI 로봇 같은 존재가 되며 이런 작업을 당분간은 각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 스마트 폰과 연결시켜 사용한다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지만 일단은 긴장감을 가진다. 과연 그런가? 이 주장대로라면 코로나 백신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위험 물질이 되는데 그것은 모처럼 가진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온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악몽이다 이에 우리는 빠르게 알고 이런 괴악한 주장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질병으로 고통 하는 분들을 구원하는 대열에 서야겠다.

1. 사탄이 여러 가지 로비활동을 통하여 백신의 개발과정을 장악하여 특수물질을 투입할 가능성, 그리고 그 이름도 루시퍼레이즈, 특허번호도 06 06 06으로 명명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하이드로필' 같은 어떤 약물을 통하여 인간의 신체기능 일부를 마비시키거나 변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2. 그러나 인간이 날 때부터 타고난 DNA를 사탄이 어떤 물질을 통하여 부분적 손상이나 개조가 아닌 완전 개조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의 의학적 보고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사

탄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 이런 확실치 않은 이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지배 안으로 끌고 간다. 실제로 DNA를 바꿀 수 없으면서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사람들을 불신앙에 빠뜨리고 그들을 자기 부하로 삼는 방법이다.

3. 백에 하나 사탄이 인간의 DNA를 변개하여 정신을 이상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한 성도가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하였고 성령이 내주한다면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빼앗길 수 없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10:28). 하나님의 구원이 물리적인 도구나 장치로 말미암아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죽일 수 없다. 세계적인 지도자인 한국의 한 목사님은 노년에 치매가 들어 공공연히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골3:3). 성도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4.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목에 찍는 것은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와 손목에 인을 칩에서 모방하는 것이다. 성령 받은 우리 성도는 모두가 이마와 손목에 인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계7:3). 그러나 우리는 언제 그 인을 받았으며 우리의 이마와 손목에 아무런 표가 없다. 마치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치시듯이(렘1:13), 사탄이 짐승의 표를 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장치를 투입하거나 장착함'이 아니고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계13:18) 했는데 그 숫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해석해보라는 말이다. 6은 7에서 하나 부족한 인간의 수이다. 매우 인간은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지혜에는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가 모여 최고 형태를 이룬 것이 666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된 7.7.7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다. 13장 전체 문맥에서 보면 인간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고안해 놓은 인간 구원의 길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다. 우상에게 절대 집중하는 행위를 '666표를 받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지금 적그리스도는 그들이 개발한 최고의 방법으로 인간을 속인다.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것도 그들의 속임수이다. 백신으로 DNA를 바꾸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기들 이론에 스스로 속고 있다. 그러나 신자들로서 하여금 이런 주장을 믿고 백신을 거부함으로써 질병에 노출되면 이 행위가 이미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이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든 빼앗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사이버 주장에 홀려 믿음이 잃지 말고 든든히 서서 자유함을 누리려야겠다. paulus1127@gmail.com

[필자소개] 최수일 선교사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박사를 취득했다. 1989년 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선교부 파송으로 인도네시아에서 10년간 사역. 2000년부터 남가주 플러튼에서 다민족 선교(Church of Freedom in Christ), 2010년부터 10년간 한국 참원에서 외국인 선교, NGO 미선단체 참원대 문화펠로십 대표와 경남미래교육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20년 5월 미국으로 귀국 현재 "교회와 나라를 위한 3.3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비틀거림

기도 중에 비틀거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비틀거리다'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힘이 없거나 어지러워서 몸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이리저리 쓰러질 듯이 계속 걷다." 한 줄의 수필을 읽는 것 같아 마음에 밑줄을 긋고 몇 번이나 되새기며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힘이 없을까? 무엇 때문에 어지러울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몸을 바로 가누지를 못할까? 몸을 추스르지도 못할 정도면 쉬어야지, 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쓰러질 듯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마지못해 걷는 것일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걷는 것일까?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 김현식의 노랫말이 생각납니다. '내 사랑 내 곁에'의 "비틀거리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라는 가사입니다. 걸쭉한 목소리로 뽑어내는 노래에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는 간경화로 32세에 요절을 했는데, 죽기 전에 병상에서 녹음한 노래는 애간장을 저미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좋아하는 음악을 뒤로하고 떠나는 노래 속에 애잔함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비틀대며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울부짖음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비틀거리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지구촌이 코비드-19 바이러스(virus)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모든 영역이 비틀거림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전도의 생활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신앙인은 비틀거리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겉모습은 달라져도 신앙의 본질마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 당시 열 재앙은 애굽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비틀거리지 않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430년의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속에서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온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시 105:37).

청소년이 장성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교회...

(2면에서 계속) 우리는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심을 한 이후로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봉사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성장함으로써 신앙을 불태우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무다. 아이들이 성경읽기 습관, 성경공부 기술, 제자훈련과 기도 생활을 본보기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들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양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재미있도록 해줬을

뿐이니까. 이제 그런 현실을 앞에 놓고 우리는 정말로 공포를 느껴야 한다.

잠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자. 우리가 하는 사역이 대학에 들어가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여전히 복음사역에 열중하는 신실한 학생을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정말로 그들을 제대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돕고 있을 뿐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 중 고등부 모임에 중독된 학생이 아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인도하고, 섬길 준비를 갖춘 성장하

는 당당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를 양육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청소년 사역 전략을 다 내려놓고 열여섯 살 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아이와 앞으로 어떻게 4년을 보내야 이 아이가 10년 후에 최고의 교회 집사, 그리고 훌륭한 6학년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을까?"

3.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중고등부 목사로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지금 내가 말하는 모든 양육 과제는 나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물론 목회자의 능력으

로 회심을 시킬 수도 없지만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가정에서 내 사역을 10배로 돕지 않는다면 사역자 혼자 힘으로는 결코 힘 있는 기독교인 성인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사역지향적 사고를 가진 이십 대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그들의 가정에서 복음이 결코 변두리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가진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 사역을 섬기고 이끌고 있는 이십 대의 경우 하나 같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도록 하는 주체는 부모다. 그들이 방향할 때 부모는 그 아이들을 징계했고 또 분명하게 책임을 물었다. 또한 그들의 부모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들의 부모는 엄격하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과의 평화와 서로에 대한 용서의 기초로 삼는 깊은 은혜의 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한다.

물론 이게 공식은 아니다! 복음중심의 멋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교회를 떠난다. 엉망진창이 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찾고 아름다운 결혼생활과 가정을 꾸리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정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성장기에 예수님을 포교해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복음으로 온전히 이끄는 부모들로부터 신앙으로 인도받은 아이들은 예수

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성장한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이 항상 옳지만 한 공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에서 나오는 좋은 원리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고등부 사역자여, 진정한 회심을 위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학생들을 온전히 양육하라.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부모들이여, 복음을 선포하고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라. 우리 사역자의 성공 여부가 당신들에게 달려있다.

목사고시 2명 강도사 고시 1명 통과 74-1회 PCA 서남노회 화상으로 개최

74-1회 PCA 서남노회(노회장/나성남포교회 담임 한성운 목사)가 줌으로 지난 19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한성운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이상현 장로가 기도했으며 한성운 목사가 '새롭게 하소서'(제2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성운 목사 축도에 이어 열린 노회는 줌으로 필드 테스트하고 이상현 강도사(나성남포교회)와 이상엽 강도사(글로벌선교교회)의 목사고시, 장준영

전도사(인랜드교회) 강도사 고시가 모두 통과됐다. 이번 노회는 작년 9월에 열리기도 한 노회가 코로나19로 노회가 취소됐으며 이날 임시노회로 열렸다. 한편 한성운 목사 인도로 열린 폐회예배는 정일웅 목사가 기도했으며 박선민 목사가 'Faith to Call'(딤후1:5-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선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에서 김병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인생역전을 이루라' 주제로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강사 김병삼 목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인생역전을 이루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성회는 김병삼 목사(분당만나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첫날 '수치를 풍요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창12:19-20, 13: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바뀌는 것"이라 말하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인생역전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신앙의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율법적이라고 말한다"며 "아브라함 인생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병삼 목사는 "우리 인생의 단점 부족함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관점을 바꾸서

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실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이 세상의 자연법칙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연법칙이 벗어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다. 코로나사태 같은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말했다. 그는 "예배자로 살면서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며 "신앙인의 삶에는 궁핍함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할 것도 있고 풍요함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들도 있다. 궁핍함 가운데 믿을 지키는 것보다 풍요함 가운데서 하나님말씀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은혜한인교회는 신년축복부흥성회와 함께 일천번제특별새벽기도회를 4월 10일까지 진행한다. (박준호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LA협의회신년기도회를 진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도움이 조국과 한인사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LA협의회 신년기도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LA협의회(회장 구에드워드) 종교분과(위원장 정요한 목사)는 지난 14일 LA협의회 사무실에서 신년 새해를 맞아 신년기도회를 화상(zoom)으로 개최했다. 이날 평통 종교분과위원장 정요한 목사 사회로 진행된 신년기도회는 구에드워드 회장의 인사말과 장병우 장로(분국 상임위원) 대표기도,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미주대표) 설교로 진행됐다. 송정명 목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시121:1-8)란 제목으로 "신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통해 우리

조국과 우리 한인커뮤니티에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남가주교협 회장 조병국 목사 '한반도 평화통일과 차세대를 위하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진건호 목사 '공공외교의 한인커뮤니티 발전을 위하여' △남가주한인장로회 회장 정도영 장로 '2032 서울평양공동올림픽유치를 위해'의 각각 공동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개최되는 신년조찬기도회를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 zoom으로 개최했다. (이성자 기자)

HYM대표 더글러스김 목사 별세

자비량 청년사역...교계 충격

지난 20여년 동안 남가주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해 오던 남가주청년연합회(HYM) 대표 더글러스김 목사가 지난 19일 코로나19로 인해 별세했다. 향년 62세. 김 목사의 유족에 따르면 지병도 없었던 김 목사는 3주 전에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중에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남가주 풀러턴에 위치한 세인트 주드 메디컬센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베델한인교회 청년부에서 회장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더글러스김 목사는 지난 1999년 청년연합회 사역을 맡고 해마다 봄과 가을 집회를 열어 왔으며 지난 2020년 가을 42회 정기집회까지 가졌다. 또한 행복한교회, 은혜한인교회, 락처치 한인교회 등에서 화요기도모임을 가져왔다. 더글러스김 대표는 퍼스트 팀 부동산회사와 프루덴셜 부동산회사, 그리고 리라이언스 부동산회사에서 오펜지카운티 지역 부동산 탐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청년연합 사역을 이끌어왔다. HYM 집회는 그동안 고 손인식 목사, 고 신용규 목사, 민중기 목사, 노진준 목사, 다니엘 뉴먼 목사, 김원기 목사, 박형은 목사, 노창수 목사, 남성수 목사, 유진소 목사, 김준근 교수 등 남가주를 비롯한 미주지역의 목회자들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HYM을 거쳐 간 청년들은 대략 2만여 명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HYM은 이사가 6장 8절의

영어를 맡을 중 (H)ear am I (Y)ou n g Christian (M)ovement의 머릿글의 의미다. 최근엔 스프링미니스트리를 창립하고 복음전파에 힘을 쏟았으며 해마다 한국을 방문 분당할렐루야교회 등에서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를 가져왔다. 젊은이들의 멘토요, 모범적으로 평생 영적 부흥운동에 헌신해온 김 목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준호 기자)



HYM 대표 더글러스김 목사

교인들 상담 어떻게 감당할까요? 월드미션대학교, 송경화 교수 사모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목사) 상담학 송경화 교수의 '사모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첫 번째 강의가 2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줌으로 진행됐다. 최윤정 교수의 인사와 강사 소개가 있는 후 시작된 세미나에서 송 교수는 "사모가 되겠다고 본인이 서원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사모 준비가 안됐는데 남편이 결정한 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모의 길을 가며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가시밭길 같은 길을 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모인 사모들을 위로하며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송 교수는 금번 세미나를 통해 교인들과 상담 시 알아두면 좋을 팁(Tip)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경험이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절반은 하는 것인데

주의 깊게 들어주되 도중에 끊지 말고 당부했다.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조용히 메모만 해두고 끝까지 듣는다. 들으면서 간단히 시선맞춤, 끄떡임, 등으로 경청을 표현한다. 두 번째로 공감하기를 들었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이다. '나라면 어땠을까?' 느끼고 표현해주는 것이 공감이다.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한 후에는 설교가 아닌 질문을 한다. 그 질문은 '지금 겪고 있는 일의 의미, 하나님의 관점, 희망'을 주는 질문을 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 있을까를 찾게 하고 이런 질문을 통해, 장점이나 희망, 대안을 생각하게 한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내담자를 바라보며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준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지 같이 슬퍼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상담자는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교수는 "사모의 육신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인들을 돌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우선 사모 자신을 돌아보고 사모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경화 교수의 후속세미나는 '사모로서 정체성 찾기와 자존감 높이기', '목회자 가정의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admissions@wmu.ekd 또는 (213)388-1000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방주교회 200여 한인노인들에게 전달

식료품 및 손세정제, 마스크 등 기관단체서 기증받아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새해 첫사랑의 점심식사 대신 어르신들께 사랑의 식료품 및 손세정제, 마스크를 전달하는 행사를 지난 14일 중앙루터교회(담임 홍영환 목사) 주차장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해외동포복지재단(이사장 송성우, 회장 박상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으로부터 기증받은 KN95 방역 마스크 1만 장과 한인 자바의류업체 '이슈와 오펜지 사인'에서 후원한 생필품을 자원

봉사자 20여 명이 200여 명 한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김영규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상황 속에서 한인 어르신들께서 이웃들과 단절된 채 교회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보내준 사랑의 식료품 및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한인 어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쁘다"며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둘로스선교교회 말씀부흥사경회

둘로스선교교회(담임 황의정 목사)는 2월 5일부터 4주간에 걸쳐 매주 금요일 7시 30분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부흥사경회를 갖는다. 김덕수 목사(샌더성경사역원 엘에이지부장)가 말씀을 전하게 된 말씀사경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 둘로스선교교회는 6가와 사토에 위치한다(3119 W 6th St, LA) www.douloschurch.com ▲문의: (323)533-3551

전재학 목사 별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작곡가이자 복음사가 작곡가로 널리 알려졌던 나눔과 섬김의교회(김종용 목사) 전재학 원로목사(사진)가 코로나19로 지난 1월 18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전 목사는 지난 1월 3일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감염 2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예배는 오는 1월 30일(토) 오전 11시 풍성한 교회(박효우 목사)에서 나눔과섬김의교회 교회장,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총회장으로 열린다. ▲문의: (213)272-6031



LA한국교육원 한인 2,3세 대상으로 상반기 뿌리교육 모집

LA한국교육원(원장 신주식, 680 Wilshire Place #200)은 남가주 지역 한인 2세·3세들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뿌리교육(2.6-5.17)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뿌리교육 프로그램은 재미한인 청소년들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한국어 10강좌와 태권도·전통 공예·가야금 등 한국문화 14강좌가 개설된다. 모든 강좌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교육 수요를 고려해 주말한국어반을 추가 신설했다. 수강료는 강좌당 40달러이며, 자세한 내용은 LA한국교육원 홈페이지(www.kec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386-3112 임소희 부원장

한인가정상담소, 2020년 서비스 통계

한인 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염)가 20일,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서비스 활동 및 성과에 대한서비스 통계를 발표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직원 6명, 정신과 의사 3명, 수련 인턴 3명, 봉사자 2명)은 총 314 명의 심리상담 케이스를 통해 종합 카운셀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평균 상담치료기간은 3.6개월에서 7.7개월, 웨이팅 기간은 1개월에서 2.5 개월이다. 총 26번의 워크샵을 통해 807명의 한인이 심리상담 세미나에 참여했다. 총 상담 클라이언트의 98%는 한인이며, 37%가 서류 미비자(11% 기입거부), 83%가 저소득층 혹은 수입이 없는 경우이다. 성별 및 연령층은 남성이 45%, 여성이 48%, 무응답 7%, 아동 청소년 22%, 성인 59%, 노년층 5%, 무응답 14%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관계에서의 어려움 26%, 불안증 18%, 우울증 17%, 부모-자녀 이슈 9%, 트라우마 관련 4% 등이다.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직원 8명, 자원봉사자 3명)은 153명의 클라이언트에게 가정폭력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총 318건의 가정폭력 케이스를 핫라인으로 도움 주었다. 60명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재정지원을 했고, 216명의 한인 종교지도자에게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4명의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주거(Permanent housing)를 제공했고, 21명에게 주거비

용을 지원하였고, 4명의 피해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3명의 클라이언트가 개업사업을 통한 부가 수입이 발생하도록 도왔다. 주 클라이언트 구성은 99%가 한인이 주 1세 여성이며, 전체 클라이언트 중 83%가 영어 구사가 자유롭지 못하다. 위탁 가정 동지찾기 프로그램(직원 9명, 인턴 2명)은 23명의 위탁 아동이 위탁가정에 위탁되었고, 7명의 위탁 아동이 친부모와 재결합했으며, 1명이 입양되고 1명이 진행중이다. 총 69가정이 위탁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이 중 9가정이 위탁가정으로 승인 받았다. 144명이 워크샵 및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7번의 부모교육에 총 132명이 참석하였다. 예방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40명의 어린이와 56명의 부모가 지원을 받았으며, 총 482건의 위탁가정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고, 이중 91건이 입양관련이다. 어린이 영양프로그램(직원 2명, 인턴 1명)은 현재 어린이집 150곳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며, 총 4만4천건(조식, 오전간식, 점심, 오후간식,저녁)의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되었다. 유지원은 현재 34곳에서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며(총 40개 중 코로나로 인해 6곳 중단) 총 44만 3천회의 음식이 제공되었다. ▲문의 : 이미리 홍보담당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그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보증을 되셨다. 인간의 정의는 구속을 통한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된다.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

신 목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1권 18-23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와 구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제사장왕이라는 삼중 직무를 주셔서 보내셨다(1권 19장).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가지셨다(1권 20장). hyojungyoo2@yahoo.com

오랜만에 눈 맞추며 설교...예배 감격스러워

제한적 대면예배 허용 후 첫 주일 교회 표정은...

방역당국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철회됨에 따라 전국 교회가 24일 대면으로 주일예배를 드렸다. 수도권에선 지난달 8일 이후 6주 만이다. 18일 0시부터 수도권의 경우 예배당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발표 후 첫 주일인 이날 교인들의 얼굴엔 감격과 기쁨이 넘쳤다. 목회자들도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교인을 향해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했고 교인들은 '아멘'으로 답했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1만2000명이 앉을 수 있는 대성전의 10%에 해당하는 1200개 좌석에 미리 스티커를 붙여둔 뒤 교인들을 안내했다. 교회는 출입자 명부관리와 이동 시 거리두기, 손 소독과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

서울 해성교회(정명호 목사)는 장년 1-3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의 인원을 각각 50명으로

제한해 모이는 예배를 드렸다. 교회는 23일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배 참석 신청을 받았다. 정명호 목사는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다가 교인들의 눈을 보며 설교하니 정말 행복하다"며 "이때를 잘 이겨낸 뒤 기쁜 얼굴로 만나자"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김병삼 목사)는 4500석 예배당에 450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날 모두 세 차례 예배를 드린 교회에는 1350여명의 교인이 모였다. 김병삼 목사는 설교를 시작할 때 교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김목사는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 반갑다"면서 "서로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자"고 권했다.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도 감격 속에 모이는 예배를 드렸다. 이날 네 차례 드린 예배에는 모두 700여명의 교인이 참석했다. 몇몇 교인은 23일 교회에 나와 청소와 소독

을 하며 주일예배를 준비했다. 김학중 목사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돼 더이상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모두 노력하자"면서 "점차 더 많은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인들은 '아멘'으로 답했다.

경기도 파주 순복음삼마교회(이일성 목사)도 예배당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15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예배당 안에 공기소독기와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한 교회는 이번 주중 출입구에 소독용 분무기와 소독 매트가 깔린 4m 길이의 '방역 터널'을 설치한다.

지난 19일 예배당 폐쇄가 해제된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에는 오전 11시 본당과 교육관에 정원의 10%인 860여명이 모였다. 교회는 소독액 분무기와 발열 체크기를 설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교인들은 예배당에서 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날 부산 강서구청과 보건소 관계자가 점검을 위해 교회를 찾았지만, 예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감신대·고신대 등 신학과 미달 사태

우려가 현실로...장신대·총신대 겨우 정원 채워

우려했던 신학과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이 됐다. 일부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정원 미달로 추가모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목회에 소명을 가진 다음세대 부족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19일 고신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후 집계 결과 2021학년도 신학과 정시 경쟁률이 0.67대 1로 나타났다. 24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했다. 고신대 측은 긴급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에 나섰다. 추가 모집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학교 신학과도 상황은 비슷하다. 감리교신학대 신학부가 0.39대 1, 한국침례신학대 신학과는 0.21대 1, 협성대 신학과 0.56대 1, 목원대 신학과 0.86대 1의 정시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소재 장로회신학대나 총신대는 가까스로 정원을 채웠지만 두 학교 모두 각각 1.31대 1, 1.71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신학과 지원 인원 부족 현상에 첫 번째 원인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꼽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전체적으로 목회에 대한 소명의식

을 가진 학생 수 감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모 대학 신학과 교수는 "일부 목회자의 이탈이나 교회의 문제점 등이 학생들에게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앗아갔다"며 "신학적으로는 만인제사장론이 목회자와 일반적 삶의 근본적 차이를 없애 목회자의 특수한 의미를 반감시킨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학부 신학생들의 급감은 신학대학원의 위기, 목회자 수급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각 대학 내지 신학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교회와 내 교단, 한국 기독교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로 여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교회성 회복... '허들링 처치' 세워가겠다

한국교회총연합 신년 간담회, 미래 과제 소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준현 목사)이 올해 내건 기치는 교회의 본질인 공교회성 회복이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한교총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소강석

대표회장은 한교총의 미래 과제를 소개하며 "교회주의의 담안에만 계도화(격리)되지 않고 사회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복음의 사회적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며 치유하는 '허들링 처치(Huddling


church)'의 모형을 세워갈 것"이라며 "떡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로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펠런'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허들링 처치'는 남극의 펠런들이 함께 모여 추위를 견디는 모습에서 따왔다.

소 대표회장은 "이를 위해 윤리와 도덕성 회복에 힘쓰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생명존중과 건강한 가정을 기초로 한 국가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패밀리 연구 연락처

<p>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p>	<p>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p>
---	---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청년 77% “가족·부모 영향으로 신앙생활”

21세기교회연구소 등 공동 청년700명 대상 신앙의식 조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가 한국교회탐구센터,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공동으로 기독교 청년의 사회 및 신앙 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독교의 '가족 종교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21세기교회연구소에 따르면 만 19-39세 기독교 청년 700명에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을 때 77.4%가 '가족(부모)의 영향·전도'라고 답했다. '친구와 지인의 영향·전도'는 17.1%였다. 교회 출석 시기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9%가 '모태 신앙'이라고 답했다.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다니게 된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21세기교회연구소장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부모에서 자녀로 신앙이 잘 전수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청년세대에서 기독교의 확장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며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다닌 비율이 65%나 될 정도로 기독교가 가족 종교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기독교 신앙 확산에 장애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따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일부 교회의 일탈 행위로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 여론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기독교 청년들조차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고 동의한 사람이 70.6%나 됐다.

21세기교회연구소를 비롯해 이번 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오는 27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 기독교 청년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 교수가 '변화하는 청년들의 안과 밖'을 주제로 발제하고,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이 '기독교 신앙의 해체와 재구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의는 정 교수와 송 교수, 김현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팀장이 나선다.

“현장선교사 의견청취...새로운 선교전략 모색”

KWMA 임총, 강대홍 선교사 신임 사무총장 선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는 지난 22일 서울 노량진 본부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줌 줌을 활용해 비대면 임시총회를 열고 강대홍 선교사를 신임 사무총장에 선출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은 회원단체 인터콥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강 선교사는 기호 1번으로 출석 인원 128명 중 과반인 66표를 받아 4년 임기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기호 2번 김중국 선교사는 54표를 얻었다.

강 선교사는 1989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GMS) 선교사로 태국에 파송됐고 동남아 지역에서 팀 선교를 하며 KGAM 선교회를 설립했다. KWMA에서는 정책위원, 이슬람대처위원회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다.

강 신임 사무총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표가 극렬하게 갈렸지만, 모두 KWMA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화합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다. 이어 "과거엔 해외로 나가는 게 선교였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선교 전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며 "교회와 선교단체 리더, 현장 선교사 등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전략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정기총회까지 4년이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지난 12일 정기총회와 마찬가지로 인터콥 관련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다. 인터콥은 신학적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교회총연합과 주요 교단으로부터 교류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이지만, KWMA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다.

예장합동과 통합,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은 인터콥에 대해 참여 금지나 자제, 교류 금지 등을 결의한 상태다. 한국교회총연합도 인터콥을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도 교류를 금지하고 한국침례신학대에 신학 문제 연구를 의뢰했다.

“혐오 프레임 씌우지 말라”

진평연, 제주학생인권조례 비판에 성명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진평연)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강종룡 제주도원의 제주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두고 일부 사회단체가 혐오 프레임을 씌웠다"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3일 제주도 도의회 본회의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당시 그는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면서 "강 의원 발언의 본질은 본인은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성애 행위가 싫고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를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규정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진평연 측은 "앞뒤 문맥과는 상관없이 일부 발언만 발췌해 문제 삼고

있다"면서 "강 의원 발언의 본질은 본인은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동성애 행위가 싫고 학생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던 진정 어린 발언조차 혐오와 차별이란 이름으로 억압하는, 즉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 폭거를 보인 인권단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진평연은 이들 단체에 강 의원의 발언을 왜곡, 폄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주도의 회에는 동성애 옹호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했다.

쪽방촌 독거 어르신과 새해 시작

세기총, 사회적거리두기 지키며 신년하례예배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이하 세기총)는 신년하례회를 2021년 1월 20일(수) 오전 10시, (사)해돋는마을 노인대학, 신생명나무교회(장현일 목사)에서 소외된 독거노인과 쪽방촌 어르신들을 섬기며 2021년 새해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진행된 이날 신년하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에 따라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시간 간격을 두고 어르신들이 오셨고 대체식과 함께, 목도리와 마스크를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교회를 찾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선물과 대체식을 전달했다. 선물 전달 후 진행된 신년하

례예배는 공동회장 김태성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의 기도, 법인감사 나득환 장로의 성경봉독이 있었으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신11:8-12)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간 곳은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곳"이라면서 "반대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일래 대표회장은 "코로나-19라는 고난이 있는 현재,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코로나-19 종식, 세기총과 750만 재외동포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합심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뒤 유럽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호동 목사가 마무리 기도를 했으며 법인이사장 고시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2부 하례식은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법인이사장 고시영 목사, 후원이사장 김희선 장로가 차례로 새해인사를 전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모든 가정과 교회, 사업, 그리고 세기총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이 가득하길 축원한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더욱 주님 안에 힘쓰는 세기총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기사제공: 세기총)

선교의 창 (162)



송종록 목사 (크리스천교전학 연구소)

3가지 전쟁과 맞닥뜨려온 인류

인류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오늘에까지 끝없는 전쟁과 맞닥뜨려 왔다. 그것은 주로 인간집단끼리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악령과의 전쟁이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한 인명살상과 재산적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다면 인류는 앞으로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주님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공동운명체라는 의식 속에서 집단 이기심을 버리고 나간다면 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간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릴 때” 우리 지구촌은 부분적일지라도 하늘의 평화를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사명이 그리스도들에게 있다. 우리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은 저들의 죄보다 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였다.

1. 인간끼리의 전쟁

인류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태고 적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

다. NY타임스 2003년 7월 6일 자료에 의하면 “인류는 지나간 3400년의 역사 가운데 평화로운 기간은 8%에 해당되는 268년”이라고 말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92%에 해당되는 3132년 동안은 계속 전쟁 속에서 살아온 셈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명, 재산, 환경피해 등 그 참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인

류는 그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만 “1억5천에서 10억 명에 이른다”(NYT)고 했다. 여기 사망자 수치는 개인이나 소그룹, 부족 간의 싸움으로 인한 살상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쟁(戰爭, warfare)이란 무엇이며 왜 인간은 이것을 일으키는가? 이는 국가 또는 정치 집단 사이의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을 말한다. 특별히 둘 이상의 국가 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수행되는 싸움이다. 전쟁의 주된 이유는 정권, 영토, 자원, 종교, 이념 등이 있으며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할 의지가

없거나, 도달하지 못하거나, 방해될 경우이다. 한마디로 패권(hegemony)싸움 때문이다. 이것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약1:15) 결과이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인구가 증가하고, 문명과 국가의 발달에 따라 살상 능력이 더 크게 비례해왔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인간이 이렇게 서로를 살상할 수가 있던 말인가? 우리는 살인범이나 테러범에게 ‘괴물이나 짐승’ 같은 표현을 쓴다. 하지만 짐승은 쉽게 동종을 해치지 않는다. 동물은 오직 먹잇감을 찾아 죽이는데 그 대상은 자신과 같은 종(種)이 아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만이 동족 살상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너무나 야이러니한 사실이다.

2. 전염병과의 전쟁

생명이 탄생한 태초부터 현

news.khan.co.kr)자료에 의하면 인류 역사를 바꾼 전염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인도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두는 실크로드를 통해 165년 로마에까지 퍼졌다. 이 병은 그동안 수억 명의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1347년에 유럽을 휩쓴 페스트(흑사병)는 당시 인구의 1/3의 목숨을 앗아 가면서 중세 몰락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를 강타해 무려 5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인류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2003년의 사스’, 2009년의 신종플루, 2012년의 메르스, 2020년 이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다. 에릭 나타프(Eric Nataf)의 소설 “아담, 바이러스의 자서전”은 바이러스의 놀라운 생명력과 진화의 힘을 보여주는 탁월한 픽션(Fiction)이다. 이 책은 “인간은 과학으로 각종 항

3. 악령과의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으로 몰아넣었다. 1347년에 유럽을 휩쓴 페스트(흑사병)는 당시 인구의 1/3의 목숨을 앗아 가면서 중세 몰락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를 강타해 무려 5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는 악령의 실체에 대해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도 직접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마4:1-11). 또한 성경의 귀신들린 자(마8:28-34)처럼 우리는 주변에서 악령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

말한 악령에 대해 교회는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죄와 육체의 악마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단의 악마적인 힘과 영적인 악의 군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항상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맺음 말

하나님의 피조물 중 으뜸인 인간은 이렇게 전쟁의 광풍 속에서 살아왔다. 가장 슬픈 일은 인간이 같은 인간을 살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보이는 전쟁이라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 현대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전, 후방이 없으며 그야말로 게릴라전이다. 더욱이 인류가 사회화, 집단화, 도시화, 세계화되면서 ‘군’의 확산과 속도전에 온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인간은 타락 이후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래저래 인류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다. 이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실상이 아니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인류호혜 사상 속에서 무력 전쟁을 멈추는 일이다. 둘째는 빌 게이츠가 언급한 “핵전쟁보다 무서운 바이러스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는 워 게임(War Game)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대처해야 한다. 셋째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10) 말씀처럼 악령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 대적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방에서 나서야 한다. 선교란 영혼구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마6:10) 애쓰는 일이다.

jrson007@hanmail.net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다. 절대자(神)를 도외시 한 인간은 결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인류가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전쟁의 불행은 계속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다. 절대자(神)를 도외시 한 인간은 결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인류가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전쟁의 불행은 계속될 것이다.

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세균, 바이러스와 공생하며 진화해왔다. 인류에게 바이러스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류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한 것은 불과 150년 전이다. 과거로부터 인류를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의 위험으로 몰고 갔던 질병의 대부분이 바이러스 전염병이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병원체가 숙주에 감염되어 발병하며 다른 숙주로 전파되면서 확산되는 특징을 지니는 질병’을 말한다.

경향신문 인터넷(http://

생체와 백신을 개발하여 바이러스를 정복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한 생명체라는 상식을 여지없이 박살내버린다”고 썼다. 불행하게도 그의 예견은 맞아 떨어지고 있다.

풀리처상(Pulitzer Prize)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교수는 저서 “총, 균, 쇠”에서 지구의 진짜 지배자는 ‘균’이라고 강조한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속된 말로 “기는 x 위에 나는 x 있다” 라는 말이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라이 악령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한 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악령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크리스천 포스트(The Christian Post)의 칼럼니스트인 매트 무어(Matt Moore)는 최근 ‘사탄과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삶의 위험성(The Danger of Living Like Satan and Demons Don't Exist)’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내용인즉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계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드라마 에언서 (15)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지역원 LA지부장)

오늘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

말라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선지자로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또 다시 타락해가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히면서 시작된 남 유다의 멸망과정은 2차 포로 여호야킨과 에스겔이 잡혀가고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3차 포로로 잡히면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나라는 망한 것이 아니다. 징계 받고 있는 중이다. 70년 후에 회복시켜줄 것이다’(예레미야), ‘내가 지킬 힘이 없어서 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세계역사의 주인이다’(다니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없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성전의 무너짐과 재건을 통해서 보여주겠다’(에스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유다는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의 포로발생처럼 세 번의 포로귀환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성전이 무너진 후(BC

586년) 꼭 70년이 지났을 때(BC 516년) 성전을 재건해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회복을 받은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또 다시 종교행위만 남긴 채 중심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말라기서의 내용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

자를 (포로귀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말1: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을 증거로 보이시며,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말1:2-5).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나를 멸시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제물(눈먼 것과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고 있었습니까

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말1:10).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은 회생 절기에 잡는 제물의 내장에서 나오는 분노(통)를 그들 자손의 얼굴에 바르고 싶으실 정도였습니다(말2:1-3).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제사를 통한 속죄)은 생명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제사장)들은 참된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지만,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결기로 가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말2:4-9). 이스라엘

게 집중되던 많은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엮으셨습니다. 부패한 제사가 드러나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엮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른바 ‘성전청결 사건’입니다. ‘표백하는 잿물’(말3:2)처럼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고발하고 있는 성전 제사와 제사장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다. 이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사람들이 묻습니

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 즉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외양간에서 풀려나서 뛰어 다니는 송아지처럼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말4: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판의 날(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말4:5).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말4:6). 타락한 백성들을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구약의 막을 내립니다.

꼭 400년 후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요단 동편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을 입고 나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눅1:17).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며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나는 심판을 외치고 있지만, 저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사회상은 말라기가 이야기해주듯이 슬프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약속하시고, 심판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시며 구약의 큰 막을 내립니다.

dsukim@gmail.com (끝)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포로귀환 공동체 다시 타락 절망 가운데 소망을 약속하시고, 심판 가운데 구원을 약속

(말1:6-9). 하나님께서 온전한 희생제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때, 희생제물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전치 못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마저도 ‘번거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말1:13).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종교행위만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십니다. 더 이상 마음이 담기지 않은 종교행위를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

의 신앙과 믿음이 거룩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도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말2:10-1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씩고 부패한 저들을 다시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렇게 등장하신 주님께서 그의 성전으로 임하십니다(말3:1).

우리는 이 구절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다. 먼저, 온전한 심일조를 드러야 합니다. 온전한 심일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아들을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말3:7-18).

하나님께서 그들이 용광로 불같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불 심판이 임하면 뿌리와 가지를 막론하고 모두 불살라질 것이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일곱째 나팔 소리의 결과(계12:15-17)찬34장

완전을 뜻하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의 큰 음성이 구속의 완성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첫째, 세상이 주 예수의 나라로 변한다고 합니다(15).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구속의 절정에 이르러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화는 그리스도가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왕 중 왕의 권위가 최절정에 달한 구속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24장로의 경배와 감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는 그 왕께 그 백성이 드리는 참된 예배로 충만합니다. 이미 그 나라의 맛을 본 우리는 그 풍성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화 완전한 구속을 향해 일어날 일들(계12:18-19)찬504장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언약궤가 들어오는 위엄 속에 어떻게 구속은 완성됩니까? 첫째, 이방이 분노하는 일이 생깁니다(18). 종말 시대에 구속이 완성되는 때는 마귀 역시 최후의 발악을 하여 하나님의 택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극에 달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 주의 진노로 심판이 단행됩니다(19). 불법과 불의가 성행해도 이를 세우시려

는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은 더 밝히 나타납니다. 셋째, 그러나 선지자, 성도 및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받습니다(18). 구속의 완성은 죄와 사탄의 멸함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세우시지만 성도는 그의 충성을 따라 약속된 상급을 얻습니다. 큰 상급을 받을 열심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수 여자와 아이(계12:1-6)찬319장

또 다시 나온 구속의 그림 속에 사탄의 맹렬한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교회에도 반복되는 것은 교회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케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상징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그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2).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듯이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둘째, 붉은 용인 마귀가 여인을 대적하나 뜻을 이

루지 못합니다(3-4). 그리스도가 탄생하자 사탄이 박해한 것같이 교회는 구속의 완성을 이룰 때 붉은 용이 온갖 교활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해칠 수 없습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 구속이 이뤄집니다. 1260일간 광야에서 고난 당한 여인과 그 아이는 그의 왕권을 만국에 행사하십니다. 그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합니다.

목 그 아이는 누구신가?(계12:1-6)찬94장

구속사 속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의 주체이신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본 이상 속의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도망다니며 광야에서 거주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정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곧 교회가 고난을 통해 승리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교회는 광야로 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에서 일정기간

보호 받는 것처럼 교회는 고난 많은 세상에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의 전도를 하라고 부름받은 교회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피난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는 이 요란한 세상에서 절대보호를 보장받습니다. 그의 백성은 그 누구도 빼지 않습니다.

금 하늘의 전쟁(계12:7-10)찬393장

또 다른 이상은 하늘에서의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요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영적전쟁으로 말합니다(7). 창세전에 일어난 이 전쟁이 세상 끝에 다시 드러나 구속이 이뤄짐을 보여줍니다. 그 영전은 구속을 완성하는 전쟁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둘째, 사탄은 패하여 세상으로 쫓겨납니다(9). 이 전쟁의 패배

자인 천사장은 패하여 마귀가 되고 참소자가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잠시 동안 세상을 혼란케 하나 그들은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승리의 주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만천하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9-10). 종말에는 그 승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백전백승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 성도의 승리(계12:11-13)찬214장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인 까닭은 이들은 서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완성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마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승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어린양의 피로 이깁니다(11). 싸움의 대상은 죄와 그것을 주관하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어린양,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이깁니다. 그의 죽음이 교회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땅에

거하는 성도는 즐거워해야 합니다(12). 이 땅에서 믿는 성도는 이미 성령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립니다. 어떤 문제라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탄은 교회를 핍박합니다(12-13). 땅을 잃은 사탄은 다시 찾기 위해 교회의 발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반드시 부셔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절대 승리를 누립니다.

알기쉬운 IT칼럼

자율주행 자동차(2)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정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북극한파라 부르는 한파인데 그 이유가 북극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랍니다. 북극 온도가 올라간 게 아이러니하게 이 추위를 몰고 온다는 것은 우리 삶에도 바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부분이 바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죽다 살아난 후 내 삶에서 내가 망가뜨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결자해지의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자율주행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주거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에 의하면 기존 자동차



기업들의 모습이, 순위가 바뀌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는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혁명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부동산에 목을 매고 계신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거형태 변화로 삶에 영향

주거 형태가 바뀌면 삶의 다른 부분들까지 바뀌게 됩니다. 자동차가 1/3로 준다는 의미는 넓은 도로가 필요 없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화물차도 대폭 줄게 될 것입니다. 지금 LA에서 뉴욕까지 운송 시간은 대략 4-5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운전자가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트럭은 정비만 잘 되어있다면 이틀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대가 하던 일을 한 대로 충분하게 되니 이 화물차도 줄게 됩니다.

화물차든 승용차든 차량의 수요가 대폭 준다는 말은 그 많은 주차장이 필요 없어짐을 의미

트래픽 없어지고 주거환경 변화로 전원주택 호황

는 70%가 줄어들 것입니다. 즉 현재 자동차가 10대라면 3대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1/10로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가 준다는 것은 트래픽이 없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출, 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집값이 비싼 서울이나 LA 도심에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설령 시간이 그리 많이 줄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운전하지 않는다면 이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LA에서 살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보다 살기 편하고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곳을 선호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에 나와 보니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대책입니다. 심지어 한국부동산을 해결하면 국가적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율주행차가 해결하지 않을까요? 만일 정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급주택의 가치가 유지될까요?

저는 지금 먼 훗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4-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2년 전 세상에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가요?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 산업구조는 물론 세상의

합니까. 그럼 그 주차 빌딩을 비롯한 넓은 공터는 무엇으로 변하게 될까요? 한국의 아파트에 있는 그 큰 주차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유명한 건축가가 예견하길 주민들의 텃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의 차고(Garage)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제 후배가 Smart Farm을 오랫동안 연구한 I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소위 대박찬스가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주택의 개념을 바꿀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공간이기에 앞서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새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주택가격의 대폭 하락을 주도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은 낮출 것이고 오히려 서울 근교의 주택가격은 높이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아파트가 더는 투자대상이 아니라면 매물이 대폭 나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집값 하락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에 몰릴까요? 예,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 거기까지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면으로 계속)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기연 제 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3)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이 주최한 제 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을 게재한다. 이번 독후감 추천도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신영), "모두 거짓말을 한다"(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침묵"(앤드 슈사카), "말그릇"(김윤나), "뚝뚝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리처드 탈러) 등이었다.

이 책은 내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봉사단원으로 몽골에서 근무하던 1994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빌려 읽은 책이다. 당시에는 거의 고립된 사회에서 살던 때라, 이 책 역시 고립감을 주면서 마음에 부담이 많았던 상태에서 읽은 책이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졌다.

선교사를 파송한 로마의 예수회 본부에서는 일본의 가혹한 박해에 굴복해서 페레이라가 배교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페레이라는 1609년 일본에 잠입하여 1633년까지 선교하던 중에 체포되었다. 혹독한 고문을 받는 과정에 동료와 신자들의 고문에 더 큰 고통을 느껴 배교하게 된다. 카톨릭 선교사인 신부가 일본인 이름으로 개명하고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여 지낸다는 소식에 로마 카톨릭의 본부에서는 큰 충격에 빠진다.

페레이라의 제자인 로드리고와 가르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일본행을 결정한다. 그리고 마카오에 들어서 일본인 기치지로와 만나 안내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본에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가르페는 순교하는 신자들을 보고 달려가다가 목숨을 잃게 된다. 이 상황

에서 신은 '침묵'하게 되었고 로드리고 신부는 박해에서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기치지로의 배신으로 밀고되어 체포된다.

로드리고는 페레이라는 만났고 페레이라가 로드리고에게 순교보다 배교를 설득하겠다고 한다. 로드리고는 배교를 거절한다. 로드리고는 자신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 내야 하는지 아니면 배교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구해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는 스승 페레이라가 결국 그 문제로 배교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배교하지 않으면 고문당하는 신자들을 구해 줄 수 없다는 고뇌에 결국 자신도 성화상(후미에)을 밝게 된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최악의 경우, 사람은 고민하

기였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당시 나는 몽골어를 쓸 수 없다고 하고 영어로 썼는데, fanatical activity를 하지 않겠다고 썼다. '광신적 종교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쓴 것이다. 당시 경찰은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각서'를 받고 말았고, 얼마 후에 그 경찰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었다. 지금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현직인 목회자가 안정되게 목회하고 있다. 물론 작은 비유이지만 로드리고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로드리고는 동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얼굴을 밝은 그는 발에 통증을 느끼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치열한 고통과 비애를 느낀다. '발아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

내가 몽골에서 처음 같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전도하고 성경공부 하다가 경찰에 발각되었을 경우였다. 당시 종교비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 취득 목적 외의 활동을 하다가 잡히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은 나를 이민청에 고발하여 추방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 물론 이것은 목숨과 바꿀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나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결정

발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라는 음성을 듣는다.

성화상을 밝고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 로드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고통 받고 있었다. 약한 것(배교)이 강한 것(순교)보다 더 괴롭지 않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

로드리고 신부는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책의 제목인 '침묵'은 행여나 하나님의 침묵으로 오해될 수 있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 책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 깊이 관여하신다. 기적을 베풀어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실 때는 '침묵'으로 함께 하신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도 역시 고통과

나는 딸에게 답했다. "그냥 '우리는 담배피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써 붙여." 그리고 대항하지 말고 그들의 양심에 맡겨보라고." 그리고 그 후로는 담배피우기를 딸의 숙소 울타리로 버리지 않았다. 딸이 이렇게 답을 보내왔다. "아하, 이게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구나."

예수의 공생애는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이길 것으로 완성되었다. 즉, 부활하심으로.

종종 그리스도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두고 고민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내게 이익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뜻이고 이익이 없고 손해와 고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끼치는 손해와 이익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오히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곤 한다.

도 11년 동안 그 마을에서의 사역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한 기간이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거나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그런 만족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 100여 킬로미터를 다니는 동안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다. 미국, 영국, 독일 등지로 유학을 떠난 동기들, 한국의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뭐하는 건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많았다. 초원의 빈 언덕을 향해 공을 차면 내려오고 또 차면 내려오는 산과의 축구를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전도하러 들어가려는 집에서 개를 풀어놓고 이방인의 종교를 전하려는 나를 쫓아내기도 하였다. 예배 중에 회개에 돌이나 감자를 던져 우리를 깨기도 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외롭게 다니는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도 하였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유목민의 심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친구들도 사귀어 갔다. 하나님은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내면을 담대하게 하여주셨다. 선교사로 사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누리게 하셨다.

조금씩조금씩 모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게 하였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다. 몽골어로 성경을 전하게 하였고 몽골인들의 가슴과 마음을 열어 복음을 알리게 하셨다. 지금은 '공가'와 '토야' 부부 목사가 지역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목회하고 있다.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체험한 지난 28년의 선교지의 삶은, 결산 해 보았을 때, '감사와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20대에 들어선 선교사의 여정을 축복의 인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울란바타르에서 jejumongol@gmail.com

우수상/ "침묵"

김봉춘 (몽골 거주 선교사)



자율주행 자동차(2)

(14면에서 계속)

내가 여러 책의 집을 가지고 있고 또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전 미국에 비디오 가게가 엄청난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상의 10배 정도는 주어야 할 정도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인기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때 저

는 여러 사람에게 빨리 비즈니스를 팔라고 조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조언을 무시했고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때 저는 컴퓨터를 통해 사람들이 연속극을 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알고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함 못 버려 바뀌는 세상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차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은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혁명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이라는 문제를 생각해서 제 이야기에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나오기 전, 즉 마차시절 가장 큰 문제는 도로에

쌓이는 말의 배설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자동차가 나오자 사실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자동차를 멈추게 하였나요? 아마 차가 더 많이 보급되면서 사고가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 다치게 되었지만, 그 대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편리함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

기도 하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편리함입니다. 특히 이 편리함은 한번 익숙해지면 절대 버리지 않는 최고의 가치로 변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부정적인 이런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데도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이고 사회 전체를 바꾸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 관념을 잠시나마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IT 전문가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보는 눈을 가진 자로 드리는 말씀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바뀌는데 교회는? 예, 반드시 바뀔니다. 이 부분은 사역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다루게 되길 원합니다.

siyoon7231@gmail.com

<h2 style="margin: 0;">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 style="margin: 0;">서부(CA)교회안내</h1>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구봉주</p> <p>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 진유철</p> <p>Tel. (323)915-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 박은성</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 민경엽</p> <p>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p>		<h3>남가주든든한교회</h3> <p>담임목사 : 김현인</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ccsa</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 노경수</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권영국</p> <p>Tel. (310)719-2244, www.dkpc.org</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 전영자 목사</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p>	
<h3>머무는교회</h3> <p>담임목사 : 김문수</p> <p>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 지용덕</p> <p>Tel. (213)380-9377, 9079</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 임승진</p> <p>Tel. (213)381-2202, www.mpcla.org</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 이정현</p> <p>Tel. (310)749-4756</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 이광형</p> <p>Tel. (562)694-6214</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김한요</p> <p>Tel. (949)854-4010 / bethelbkc.org</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 오세훈</p> <p>Tel. (213)-235-7691</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 김요섭</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p>		<h3>엘피스사역원</h3> <p>원장: 박은송 목사</p> <p>http://www.elpisfamily.org/ Tel. (714) 700-9928</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 한기홍</p> <p>Tel. (714)446-6200, www.gracemi.org</p>		<h3>주님새교회</h3> <p>담임목사 : 박성규</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 신승훈</p> <p>Tel. (213)749-4500, www.gccj.org</p>	
<h3>좋은마음교회</h3> <p>담임목사 : 신원규</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 이종용</p> <p>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 김우준</p> <p>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c.org</p>		<h3>핼(PIM)선교회, 교회</h3> <p>담임목사 : 이훈우</p> <p>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p>		<h3>하늘소망교회</h3> <p>담임목사 : 김덕수</p> <p>Tel. (213)500-2948, docck.kim@ioia.edu</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p>L.A.: Tel. (323)665-0009</p> <p>N.Y.: Tel. (718)886-4400</p>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교회는 내 가족...교회 없이 나는 내가 될 수 없다.

크리스체니티투데이, 포스트코로나시대 교회, 왜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주일 아침에 나(Carmen Joy Imes, 캐나다 앨버타 Prairie College 구약학 조교수)는 따뜻한 담요를 꺼내고 벽난로 앞에 앉아 조용함을 즐긴다. 얼마 후에 나머지 가족이 동요하며 다음의 몇 가지 선택 중에 고민할 것이다. 교회에 갈 준비를 할 것인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온라인 예배를 나중에 볼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인가?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2020년에 COVID19로 인해 등장했다.

현재 캐나다 앨버타 시골 카운티의 COVID19 확진자는 없다. 이 주 전역의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교회는 다시 모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많은 예배조치가 따른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 더 복잡해졌다. 일부 교회에서는 사전등록,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사용이 필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교회 좌석들이 떨어져 있거나 군데군데 차단돼 있다.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주일 학교 프로그램들이 중단됐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약속도 못하고 로비에서 모이지 못하는데 왜 굳이 교회를 가야 하는가?

집에 머물러야했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 각종 장비와 훈련에 투자했으며 온라인 스트리밍에 도전했다. 이를 잘 수행한 교회들은 또 새로운 도전을 직면한다. 즉, 대면 예배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한 지방 목회자는 저예산과 부족한 경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교회가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통해 행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온라인 예배들을 계속 지속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교회로 돌아오기를 열망한다. 또 다른 목회자는 교회를 재개하는 것이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솔직히 우리 교회는 예배를 디지털화 하는 훌륭한 일을 해왔고, 우리 지도자들은 직접 만나지는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번역력이 약해 아직 안전하게 모일 수 없는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마을을 넘어 더 많은 청중에게 도달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6피트 간격으로 의자를 둔 상태에서 주일 아침에 우리 모

두가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당신이 속한 지역의 자치단체가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오면 결국 제한은 풀릴 것이다. 왜 굳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복잡한 절차를 통해 예배드리고, 거리를 두며 인사 나누고, 숨 막히게 노래를 부르며 주말의 평화를 깨트려야 하는가? 왜 그냥 집에서 드리지 않는 것인가? 왜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교회 전통에 따라 분명한 대답이 보일 수 있다. 바로 성찬식이다. 당신이 만약에 성공회, 가톨릭 또는 루터 교인이라면 6개월 이상 성찬 없이도 지내왔을 것이다. 침례교도에게도 가정에서 성찬을 위한 크래커와 주

스는 성찬과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그러한 성찬의 부재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성찬식은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YouTube'가 실현시켜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차원 중에 하나다. 그것은 더 넓은 문제를 가리킨다. 바로 그리스도의 체현이다.

500여년 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달레마를 예측하듯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통해 설명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문답1).

지난 6개월 동안 'Zoom(온라인 회의 플랫폼)' 또는 'YouTube'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당연한 줄만 알았던 삶의 리듬은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이 아니게 됐다.

COVID19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질문을 던졌다. 어쨌든 교회의 요점은 무엇인가? 직접 모이는 것 말고도 온라인으로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Church After COVID19-Why Bother Going Back?).

내 몸은 예수의 것이다. 더 나아가, 나는 또한 세상에서 그분의 은혜의 수단인 교회에 속한다. 물론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교회가 되는 것(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훨씬 많지만, 모이는 예배는 교회의 일부가 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다. 교회를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무언가 상실된 것 같다.

나의 부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감소시키는 반면, 나의 존재는 하나님

Love(Brazos, 2016)”에 따르면, 우리의 신체적 참여는 지금은 감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은 우리의 사랑을 형성하고,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 스미스는 특정 덕목을 기르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에 새겨지는 그 관행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주장하기를, “...반형성적인 기독교 예배는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의 교제: 사랑지향, 하나님 가족 동참 하나님 은혜 역사 동참, 하나님나라 충성 선언

나라에 참여하는 가시적인 수단이 된다. 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의 나의 존재를 보류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중요하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쓴 이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해야 할 것을 거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영혼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구현된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온라인으로 접속하더라도 가능하지 못한 일이 물리적으로 함께 모였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제임스 K. A. 스미스의 저서 “You Are What You

원한다. 단순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는 것은 나를 적극적인 참여자라기보다는 고독한 소비자라 만든다. 디지털 예배는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선물 같았지만, 신앙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이들 염두에 두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모임이 허락됐는데, 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교회에 다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1. 교회에서의 매 주마다 함께 하는 교제는 나의 사랑을 지향하게끔 돕는다.

매 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표류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가도록 재조정된다. 이는 꼭 특정한 주에 영감을 받거나 도전을 받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나의 당연한 문체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판기가 아니다. 교회는 해마다 경작되면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는 밭이다. 내가 매 주마다 교회에서 배를 가득 채우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가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 나는 풍성한 수확을 낼 때까지 매주 조금씩 성장하도록 받을 돌본다.

2. 매 주 교회에서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한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서원했을 때, 그것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보장하는 전환이 아니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매주 이 사람들과 함께 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돌보는 관계적 네트워크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교회는 자판기가 아닌 '밭'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함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서로를 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후원한다. 이는 그들의 메시지에 에너지와 연대를 제공한다.

나의 존재는 또한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 예배의 가치를 확인시켜준다. 6피트 떨어진 곳에서의 나의 미소와 인사, 그리고 (마스크 뒤에서) 찬양을 위해 높이는 나의 목소리는 함께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은 물리적으로 표현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일깨워준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서로 대변하는 것이다.

나는 나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다. 나는 나보다 더 큰 것, 즉 지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 어려운 해의 끝없는 시련으로 집에서 고립되고 외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의 육체적 존재는 생명선이 될 수 있다. 서로 눈을 맞추는 일은 한주 동안 살아갈 힘을 준다.

4. 매 주마다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는 수단이다.

결국은 교회가 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증거 하는 가시적 수단이다. 교회에 매주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공동체의 다른 구체적인 어떤 기관들보다 더 실질적이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회의 우체국, 가게, 학교, 정치인 및 그들의 사무실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COVID-19과 천재지변, 그리고 우리 세계의 모든 추악한 불평등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나의 참여가 이를 보장하며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교회에 간다. 나는 당신도 가능한 한 빨리 교회에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예배의 장기적인 이점들은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견뎌야 하는 번거로움 들을 훨씬 능가한다. 내가 흥분하던 그렇지 않던(나는 보통 그렇다!), 교회는 내 가족이며, 교회 없이 나는 내가 될 수 없다.

3. 매 주마다 교회에서의 교제를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교회 출석을 위한 나의 노력은 나의 리더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사역을 옹호한다. 카메라에 대고 설교를 시도했던 목회자들은 이전과 같지 않음을 알 것이다. 나의 참석은 나의 목사님과 예배 인도자가 공부하고,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 및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집중강의 및 Online 으로 학점 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 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 가능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기간 : November 20, 2020
- 제출처 : jp@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